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2023년
사회적경제-CSR
협력 사례집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2023년
사회적경제-CSR
협력 사례집

Contents

발간사	006	3부 중간지원조직과 동행한 사회적경제-CSR 협력사례	080
1부 들어가며	008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08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현황	010	알파라운드 청년소셜벤처 대출지원사업	084
사회적경제가 사회에 가지는 가치	013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08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역할	016	(재)함께일하는재단	092
기업 사회공헌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018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	094
사회적경제 영역과 기업 사회공헌 간 협력 모델 및 사례	018	구글닷오알지 코로나19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	098
2023 사회적경제 SE 브릿지	021	카카오페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	102
[기고] 2024 사회혁신의 방향	024	공항 교통약자 이동 지원사업 “공항 포티케어 서비스”	106
2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CSR 협력사례	026	언더독스 주식회사	110
한국사회적기업상	028	GS리테일 에코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112
ESG(환경·에너지) Scale up 지원사업	032	애그테크 청년창업 캠퍼스 NH Seed	116
ESG 지역사회 문제해결 × GKL 온(溫) 지원사업	036	하나금융그룹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120
KDB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040	임팩트스퀘어	124
LG소셜캠퍼스	044	KT 따뜻한기술 더하기챌린지	126
사회성과인센티브	048	SK머티리얼즈 'STAXX(스택스)프로젝트'	130
로컬(농어촌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052	롯데케미칼 PROJECT LOOP SOCIAL	134
신세계아이앤씨 MINI CONTEST	056	MYSC	138
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하는 제3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및	060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140
제1회 Woman star 발굴 및 복지지원	064	구글 디지털 혁신 기금	144
하나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	064	메트라이프 인클루전 플러스	14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경제-CSR 자원연계 사례	068	카카오 제주임팩트챌린지(JIC)	152
[토론] 2023 컬렉티브임팩트 창출 포럼_연결, 이음과 맞음	072	[라운드테이블] 2023 SE브릿지 경험과 발전	156
		4부 연대와 협력 그리고 사회적 임팩트	160
		[기업사회공헌담당자 인식 설문조사] 2024년의 사회공헌과 사회적경제	162
		[인터뷰] 협력적 파트너십의 생태계 조성자 인터뷰	171

발간사

지난해에 이어 2023년도에도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소셜 이슈 해결을 위한 민간 및 공공 주체들의 협력 사례들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본격적으로 회복한 첫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남긴 상흔과 그로 인해 선명해진 우리 사회 곳곳의 모순들과 취약 지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하는 과제들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18일, UN총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A/77/L.60) 결의안(이하,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결의안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각 지역별 적용과 관련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와 사회정의, 민주주의 향상에 대한 기여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회원국과 관련 주체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지역별 정책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2022년 채택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 및 같은 해('22년)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기후 위기와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법과 대응책의 모색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 유력한 수단과 기제로 사회적경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전년에 이어,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다양한 사회적경제와 민간 및 공공기관의 협력 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금년 진행된 사회적경제와 민간, 그리고 공공영역의 협력은 기후 위기, 지역소멸, 양극화, 일자리, 소외와 고립, 돌봄 위기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소멸, 돌봄 소외 극복 등의 주제를 위한 협력 사례가 눈에 띕니다.

언제나처럼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 책자 발행을 위한 자료 작성에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사례 공유가 이제 막 유사 소셜 이슈 영역의 파트너십과 협업 방식을 고민하는 담당자에게 빛과 소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과 민간, 공공,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우리 사회와 내 삶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관련 움직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 지속적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다양한 주체들의 필요와 자원, 각각의 활동들을 이어주는 연결자와 협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정현곤

1부 들어가며

“국가나 시장 주도 경제발전이 우리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사회연대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2023년 유엔(UN) 총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중요성이 부각 되는 시점, 환경파괴, 불평등, 빈부격차, 고용불안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 사회공헌과 사회적경제의 만남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현황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이라는 모두를 위한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의미

구성원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일반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고용안정과 양극화 해소 등에 기여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경제 주요 기업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현황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2023년 10월 사회적기업 현황(개소,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할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2023년 9월 사회적기업 현황(개소,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 단위 기업



22년 현황

자활기업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인 자활근로를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1,012개소

22년 현황

소셜벤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



2,184개소

21년 말 현황

사회적경제가 사회에 가지는 가치

“국가나 시장 주도 경제발전이

우리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사회연대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2023.4.18 UN 총회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eneral Assembly, 77th Session 66th Meeting

2023년 4월, 유엔(UN)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사회연대경제를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모델로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참여시키도록 장려 ▲유엔기관들이 사회연대경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도구로서 인식하고 회원국들이 사회연대경제를 프레임워크로 활용하도록 장려 ▲국제·지역 금융기관과 개발은행이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적합한 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도록 장려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작성 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¹

국제사회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는 도구로 사회연대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 결의,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22년 6월 개최된 국제노동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공식적 정의를 채택했고, 사회연대경제 촉진을 위한 지침과 주요 주체들의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ILO가

¹ 노윤정기자, LIFEIN, 2023.04.19. “UN,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위한 첫 번째 결의안 채택” 중 발췌

정의한 사회연대경제는 이번 UN 총회의 결의안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는 집단 또는 일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경제, 사회 및 환경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단체 및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 이들은 자산과 잉여금, 이익의 분배 및 사용 과정에서 자본보다는 자발적 협력과 상호 원조, 민주적·참여적 거버넌스,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기초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은 장기적인 실행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로 전환하는 일을 열망하며, 모든 경제 부문에서 운영된다. 그들은 자신의 기능과 본질적인 가치들을 실천에 옮기고, 사람과 지구를 돌보는 일, 평등과 공정성, 상호의존성, 자기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와 생계의 성취와 일치한다. 국가 상황에 따라 SSE는 협동조합, 협회, 상호 사회, 재단, 사회적 기업, 자조 단체 및 SSE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장기적인 실행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로 전환하는 일을 좇으며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운영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내재해 있는 가치를 실천에 옮긴다. 이러한 가치에는 사람과 지구를 돌보는 일, 평등과 공정성, 상호의존성, 자율성,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 등이 있다. 국가 상황에 따라 사회연대경제기업은 협동조합, 협회, 공제조합, 재단, 사회적 기업, 자조 단체 및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22년 6월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EU Social Economy Action Plan)’을 채택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8가지의 구체적인 핵심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UN의 결의안에 의하면 사회연대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으로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중략).. 사람들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여 사회혁신과 빈곤 완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경제 촉진, 성평등 달성과 여성의 권리 신장, 노동권 및 사회적 보호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³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국가가 주도하거나, 시장이 주도하거나 성장 중심의 경제 발전은 늘 성과 못지않게 한계점도 노정하고 있습니다. UN이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장 중심 경제의 한

² 박유진, 이로운넷, 2022.06.28. “ILO, 사회연대경제 공식 정의 채택” 발취

³ 노윤정, 위 기사 발취 및 재정리

계점은 빈곤, 건강 불평등, 양질의 일자리 감소, 환경의 파괴, 사회의 위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인구구조의 변화나 기후 위기 등과 결합하면 이전엔 없던 큰 위기로 전환합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뛰어나면서도 더 건강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United Nations A/77/L.60

 **General Assembly**

Distr.: Limited
27 March 2023
Original: English

Seventy-seventh session
Agenda item 18
Sustainable development

Belgium, Canada, Chile, Colombia,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quatorial Guinea, France, Hungary, Italy, Luxembourg, Morocco, Senegal, Slovenia and Spain: * draft resolution**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resolution 70/1 of 25 September 2015, entitled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calling also its resolution 69/313 of 27 July 2015 on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Recalling further its resolution 71/256 of 23 December 2016 on the New Urban Agenda, the annex to which contains a commitment to supporting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throughout the value chain, in particular businesses and enterprises i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operating in both the formal and informal economies,

Recalling its resolution 76/135 of 16 December 2021, entitled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in which it recognized that cooperatives, in their various forms, promoted the fullest possible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Indigenous Peoples, local communities and all people, whose inclusion strengthen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contributed to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hunger,

Recognizing that social entrepreneurship, including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can help to alleviate poverty and catalyse social transformation by strengthening the productive capacities of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accessible to them,

Recognizing also that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geopolitical tensions and conflicts have exposed many fragilities in economics and deepened existing inequalities, and that a deeper, more ambitious, transformative and integrated response is urgently needed,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역할

우리 곁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곁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도전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하는 통합전문기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성장-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다각도의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자원연계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해 정책 및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이라는 모두를 위한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더 큰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미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전

사회적경제 성장 및
가치 확산을 견인하는
협력 파트너

핵심가치

소통

협력

전문성

혁신

중장기 경영목표

사회적경제기업 매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확충

대국민 공감도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선도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

사회적경제 진입 촉진

맞춤형 성장지원 고도화

사회적경제
성장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다양한 주체 간 연대 및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 인식 및 가치 제고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대응체계 구축

지역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민 체감형 성과측정 체계 고도화

지속가능경영
확립

공정하고 청렴한 경영환경 확립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 혁신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현

기업 사회공헌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1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한국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년)&과 &협동조합 기본법(2012년)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간 기업들도 다양한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이 각 기업의 자원과 비즈니스 영역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의 양상은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함께 공동의 가치를 키우는 형태로 그 범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사회공헌은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앞둔 사회적기업가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기대하는 팀에게 사업비, 전문가 컨설팅, 공간 등을 지원하고 투자를 연계하며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구분	협력 내용	프로그램명	기업(기관)
인재 양성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KAIST SE MBA	SK, KAIST
		하나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하나금융그룹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투자 연계 및 공간 지원 등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현대자동차그룹
		LG소셜캠퍼스	LG전자, LG화학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사회적기업이 적절한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산업 분야, 경영 부문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의 협력은 사회적기업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업 사회공헌은 사회적기업에게 인프라를 제공해 생산활동을 개선하거나 홍보나 판로를 지원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과 상품 및 서비스의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에서 함께 성장할 인턴십 지원부터 사회적기업가의 안정적인 활동과 실험의 바탕이 되는 펠로우십 지원까지 사회적경제 안에서 사람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구분	협력 내용	프로그램명	기업(기관)
프로젝트 / 자금지원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미니 콘테스트(Mini-Contest)	신세계아이앤씨
		친환경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지원 사업	S-OIL
	성과 평가(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사회성과 인센티브	SK그룹
시설 / 인프라 지원	성장에 필요한 시설 / 인프라 구축 지원	고용 인프라 지원사업	KDB나눔재단
		안심팩토리 지원	한국가스공사
인력(사람) 지원	인턴십 채용 지원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하나금융그룹
활동 지원	사회적기업가 활동 지원	아쇼카펠로우	아쇼카코리아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카카오임팩트
기술 / 자문 지원	경영 자문 및 성장 지원	프로보노	SK그룹, 포스코그룹
		HACCP 인증 지원	한국식품 안전관리인증원
홍보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지원	지면 광고 지원	(주)SR, 유한양행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지원	유통채널 활용 홍보	11번가, K쇼핑
		기업·공공기관 내 사내 카페 입점 지원 등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

**사회적기업
파트너십**

사회적기업과 기업은 지원을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협력적 파트너십의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기업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은 폐기물, 원재료 단계에서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가치사슬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창출하고자 하는 가치를 먼저 실험해 그 가능성을 미리 구현하고 혁신성을 더하기도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파트너십의 영역 확장은 SDGs와 ESG가 강조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협력 내용	프로그램명
사회공헌 파트너십	기업 사회공헌 파트너십	트리플렛닛은 다양한 기업과 함께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숲을 조성하고 공익 캠페인을 운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SE브릿지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2023년 SK가스, 한국에자이)
프로젝트 파트너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행복나래는 100여 개의 기업과 함께 결식 우려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구축 SK텔레콤은 전국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와 독거 어르신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삶의 질 개선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상우리와 함께 '굿잡5060' 사업을 통해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
비즈니스 파트너십	가치사슬 연계 인수 및 합병	현대다이모스는 모어댄과 함께 페시트 가죽을 업사이클링하여 환경도 지키고 일자리 창출도 지원 직방은 웨어하우스 WOOZOO를 인수해 1인 주거에 대한 주택임대 관리로 사업 영역을 확장 코오롱FnC는 친환경 패션 사업을 강화하고 ESG 경영을 위해 윤리적 패션기업 KOA를 인수
사회적기업 설립	사회적기업 직접 설립	SK 그룹은 2013년 환경 보호, 취약계층 대상 양질의 일자리 제공,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설립 한화그룹은 한화B&B 설립하여 카페를 통한 사회적 공유가치를 창출 현대차그룹은 대학생 환경봉사단인 해피무브를 설립하여 대학생 환경 리더 양성 교보생명은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내 사회적기업 1호 다솜이재단 설립

2023 사회적경제 SE 브릿지

**기업 사회공헌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이노소셜랩은 사회적경제 SE브릿지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적경제 SE브릿지는 기업-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자원과 사회적경제의 협력을 촉진해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키우고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캠페인입니다.

2023 사회적경제SE브릿지의 세부 프로그램은 기존의 SE브릿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3 사회적경제 SE브릿지에는 기존의 SE브릿지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현재 사회혁신의 주요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 2개의 아젠더(환경,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SE브릿지 프로그램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기업, 공공기관, 사회혁신조직, 정책조직, 투자조직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라운드테이블 '경험과 발견'은 순환경제와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2회 개최되었고,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사회공헌의 접점을 만들던 공모전은 생물다양성과 지역돌봄의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공헌교육 기업 사회공헌과의 협업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많지만 막상 기업이 왜 사회공헌을 하는지, 어떻게 사회공헌을 하고 협업 파트너를 찾는지, 제안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SE브릿지는 2회, 4강의 강의를 통해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회공헌 교육에는 441명이 참여해 사회공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경험과 발견 라운드테이블은 협력의 확대와 성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로 '대화의 촉진과 이해'입니다.
Roundtable 1. 순환경제 순환경제, 사회서비스 2개의 주제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은 주제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 사회공헌담당자, 투자 조직, 사회혁신 솔루션 조직, 정책 조직의 구성원 18명이 각각 참여해 서로의 경험을 스피치하고 경험 속에서 얻은 발견의 결과를 나누었습니다.

사회적경제 SE브릿지 공모전 SK가스의 '생태계 및 생물종 다양성 보호 혹은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솔루션', 한국 예자이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공모전은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106개의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제안 기업에 대한 멘토링이 제공되었습니다. 최종 발표와 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이 2024년 2개 기업과 협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 포럼 이 외에도 기업·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업을 소개하고 그 사례를 분석하는 사례집이 제작되었고, 협력을 위한 다자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포럼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2023 SE브릿지는 기업·공공기관의 협업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협업의 사례를 만들어 내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SG 이끌 것인가, 이끌릴 것인가

이노소셜랩 연구위원
서진석

혹자는 2023년을 ESG 2.0이 시작되는 해로 분류한다. 2020년 국내에 불기 시작한 ESG 열풍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요 ESG 규제 정책이 2023년 들어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2023년 EU에서 진척되고 있는 40여건의 ESG 규제 정책 중에, 가장 파급력이 큰 규제 다섯 가지를 꼽으려면 탄소소국경조정제도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 △ESG 공시 의무 △에코디자인 규정 △배터리 여권을 들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목적지 시장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목적지 시장에서 교역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다. 2026년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대상 기업은 당장 2023년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을 의무 보고해야 한다. 곧 유기화학품, 플라스틱도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에 대해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는 기업이 사업 활동과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고, 중식시키거나 완화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수행토록 하는 조치다. 2023년 4월 유럽의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청의 사업자성 인정' 이슈 등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는 공급망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는데, 글로벌 ESG는 심층 공급망 문제까지 겨냥하고 있어 온도 차가 무척 크다.

ESG 공시에는 주요하게 유럽의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에 의한 공시,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 공시, 그리고 IFRS재단이 하고 있는 ISSB(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공시가 있다. CSRD에 의한 공시는 2023년 1월에 발효되었고, SEC와 ISSB의 경우는 기후 공시를 연내에 확정하거나 이미 6월에 확정했다. 모두 2023년에 공시 기준을 확정하는 셈이다. 대상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ESG 공시를 해야 하는데, 내용 중 하나로 공급망 및 소비

단계 등 기업 통제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Scope 3)도 공개해야만 한다. 이 역시, 기업 통제 시설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기업이 구매하는 전기 생산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 실정과는 격차가 있다.

그 외 EU 집행위는 에코디자인 규정을 2023년에 완성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일반 소비자가 전자 표식으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 여권' 제도 시행 규정도 담길 것이다. EU 배터리 규정도 2023년 8월에 발효되었다. 이는 배터리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다양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ESG 관련 지각 변동이 2023년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결정되고 있는 규칙들이 대부분 시행되는 2026년 전후해서 보다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방향에서 일반 기업들의 ESG 추는 2024년 들어 더욱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ESG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몇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어 공급망 및 소비단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기업 차원의 온실가스만 이 아니라, 제품 단위의 환경영향 축소를 위해 전 과정 평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심층 공급망으로 ESG 영역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은 심층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환경, 인권 이슈에 대해 모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아직 환경 중심으로 ESG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차 인권 등 사회 영역을 겨냥하고 있다. 실제 2024년에는 심층 공급망 인권 등 ESG 사회 영역의 공시 기준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ESG의 지각 변동에 대해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연 이 흐름이 자본주의를 구할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ESG 방향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현재 주류 ESG의 지향점을 넘어선 앞선 가치를 제시해왔다. 예를 들면 단순히 환경영향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되살림 농업, 유기농 등을 통해 환경 회복의 가치를 제시해왔고, 아동노동 방지를 넘어 공정무역, 생활임금 등에 대해 앞선 실천을 해왔다. 또한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건강한 이사회를 넘어 조합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시켜 왔다.

현재 주류 ESG는 지속적으로 넓이와 깊이를 더욱 확장해갈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과 속도가 환경 위기와 소득 불평등을 되돌려 놓을지는 미지수다.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가치를 제시하며, ESG의 방향과 속도를 이끄는 것이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2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CSR 협력 사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닥친 환경문제, 지역 격차, 사회적 약자 소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하여 사회적 임팩트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2부에서는 민간자원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협력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임팩트를 키우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국 사회적기업상



사업기간	2017년 ~ 현재
협력 파트너	한국씨티은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지원대상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웹사이트	citibank.co.kr

파트너십 기업/기관

한국씨티은행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전념하는 ESG 책임 경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사회의 따뜻한 성장을 주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기업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 사회가치의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매년 3개소)

분야별 수상금액 기업당 상금 1,000만 원 수여(매년 총 상금 3,000만 원)

추진 전략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기 수상기업의 성과를 매년 추적하여 발굴 이후의 (예비)사회적기업 성장 현황을 기록, 공유함으로써 단순 포상을 넘어 CITI은행, 타 수상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함

프로세스



주요 성과

수상기업
2017 ~ 현재

누적 **18** 개사

수상금액
2017 ~ 현재

누적 **1억 5천** 만 원

사회적 임팩트

지난 6년간 '씨티은행 한국사회적기업상'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가치 창출에 애써 온 (예비)사회적기업 18개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기업의 사회가치 창출에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매년 일자리 창출 분야, 사회혁신 분야, 성장 분야별로 취약계층 대상 양질의 일자리 제공,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가치 창출하거나 사회가치 창출에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홍보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상'은 사단법인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과 손잡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10주년과 글로벌 금융그룹인 씨티의 한국 진출 50주년을 기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온 사회적기업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우수한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로 일자리 창출 분야, 사회혁신 분야, 성장 분야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 및 전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로 1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이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적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사회적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씨티은행 마케팅커뮤니케이션 CSR팀
팀장 **김도훈**



ESG(환경·에너지) Scale up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년 ~ 현재
협력 파트너	한국남동발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지원대상	ESG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파트너십 기업/기관

한국남동발전(주)은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친환경 설비를 자랑하는 영흥발전본부 등 5개 발전소에서 약 10GW 규모의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우리나라 전체 전기 공급량의 약 10%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한 결과,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GW를 달성하였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목표

한국남동발전(주)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협력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가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ESG(환경·에너지) Scale up지원사업”을 계획·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

지원대상	경남지역 내 ESG(환경·에너지) 사업모델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규모	3社, 총 3천만 원(기업당 1천만 원)
지원내용	ESG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 비용 지원
사업기간	'23. 10월 ~ 12월(3개월)



추진 전략

경남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ESG 역량 강화

프로세스



주요 성과

일자리 창출 및 매출 확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및 탄소배출 절감

사회적 임팩트

지역사회(경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협력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업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



'23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과공유금 전달식



한국남동발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와의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역량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상생의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남동발전(주) 동반상생처 중소기업지원부
부장 정충호



ESG 지역사회 문제해결

× GKL 온(溫)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년 ~ 현재
협력 파트너	그랜드 코리아레저(GKL), GKL사회공헌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상상우리(서울1센터)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초기 창업기업 관광레저 업종, GKL에 납품가능한 제품 보유기업 우대
웹사이트	grandkorea.com, gklfund.org

파트너십 기업/기관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은 관광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으로서 관광산업 성장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KL사회공헌재단은 2014년, 관광을 중심으로 국내외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일반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관광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자 출연기관인 GKL과 함께 재단의 핵심 역량인 관광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표

ESG 지역사회 문제해결 X GKL 온(溫)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인 초기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GKL(그랜드코리아레저)와 GKL사회공헌재단에서 2020년부터 4년차 진행하는 민·관·공 협력 사업입니다.

GKL, GKL사회공헌재단 임직원, 프로보노를 연계한 자문멘토링과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습니다.

사업 내용

GKL, GKL 사회공헌재단 임직원 프로보노 자문 멘토링 제공	GKL과 GKL사회공헌재단 임직원의 자문 멘토링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IT, 정보보안, 공공구매, 마케팅 등 기업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자문 제공
사업개발비 지원	초기, 성장단계 사회적기업이 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원 시제품 개발, 플랫폼 구축, 제품/서비스 마케팅, 홍보 등 경영역량 강화에 활용

프로세스



주요 성과

참여기업

31개소 발굴 7개소 선정

역량강화 프로그램

2회 운영

기관장상 포상

우수기업 3개소

프로보노 매칭 및 멘토링

GKL 8인
GKL 사회공헌재단 1인

9명

사업개발비 지원

각 10백만 원

7개소

사회적 임팩트

대표기업 사례

(주식회사민트웨이)

“노인을 더욱 아름답게, 노년을 더욱 존귀하게”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향기테라피와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는 청년 스타트업으로, 조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감각 인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SG 지역사회 문제해결 X GKL 온(溫) 지원사업을 통해 시니어 교육, 조향제품 컨설팅 및 판매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기간 내 매출 1300여만원 창출 및 신규 인력 1인을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표기업 사례

(한국생태문화협동조합)

“저출산과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을 웰니스 지역 관광 활성화로 해결한다”

저출산과 청년 유출 심화로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를 산림환경교육 및 체험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설립하였습니다.

ESG 지역사회 문제해결 X GKL 온(溫) 지원사업을 통해 웰니스 관광 서비스 운영자 양성과정 개설 및 운영하여 70명의 운영자를 육성하였으며, 1박 2일 웰니스여행상품(칠곡) 개발 및 시범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GKL 온 지원사업



GKL 온 지원사업



ESG 지역사회 문제해결 X GKL 온(溫) 지원사업을

2년차 담당하고 있는 GKL사회공헌재단 박상준 팀장입니다.

올해에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주제 아래,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보았습니다. 다양한 기업을 만나고 공유하는 경험 속에서 재단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사업 간 연결이나 신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GKL사회공헌재단

팀장 박상준



KDB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파트너십 기업/기관

KDB나눔재단은 KDB산업은행의 출연으로 설립한 공익재단 법인으로,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3개 부문의 9개 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목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기자재 구입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 일자리 창출, 복지 서비스를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KDB나눔재단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사업 내용

고용 인프라 확충 / ESG 액셀러레이팅 지원
고용 인프라 지원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기자재 구입, 시설보강)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발굴 11개사 지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5개사 재지원(23년)

ESG 액셀러레이팅 지원
 ·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사회문제 솔루션 사업화 자금 지원
 · 4개사 지원(23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컨설팅 연계

멘토링·컨설팅 지원 / 후속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지원(고용 인프라 참여기업)
 · 일대일 맞춤형 멘토링 및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지속성장 모델 구축
 · 비즈니스모델 다양화, 판로 개척, 매출 채널 확대 등 기업 성장 동력 제공

컨설팅 지원(ESG 액셀러레이팅 지원)
 · 친환경, 에너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표준형 컨설팅 연계
 · 사업 계획 고도화 및 후속 자원 연계, 임팩트 투자자 프로그램 지원

후속 지원
 · 성과공유회 : 지원기업 간 사업성과 발표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필요 자원 연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 확대로 참여기업이 단계적으로 Scale up 될 수 있도록 촉진
 ·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참여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성장 동력 기반 마련



사업기간	2015년 ~ 현재
협력 파트너	KDB나눔재단,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웹사이트	foundation.kdb.co.kr



추진 전략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 지원 및 필요자원 연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 발굴 및 재지원을 위한 심층 심사(현장실사, 면접 등)
	시설비 지원 및 멘토링·컨설팅을 동시 시행하여 시너지 효과 증대
	주관·운영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과 각 지원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자원 연계

프로세스



주요 성과

現시설비/기자재구입비 지원사업이 전무하여, 매년 KDB 고용인프라 확충사업 신청 기업 수 증가로 홍보 활성화('22년 230여개, '23년 270여개 기업 신청)

약 130여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15년~'23년 고용 인프라, ESG 액셀러레이팅, 생산물품 연계, 클라우드 펀딩 지원 등 포함)

고용인프라 및 ESG 지원사업으로 신규 70개 및 재지원 34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하여 사업의 다각화 및 Scale up, ESG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 '22년 고용인프라 지원사업 성과 측정('21년 대비) : '21년 총 유급근로자 220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103명(46.8%)에서 '22년 총 유급근로자 226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108명(47.8%)으로 고용실적 유지 및 취약계층 고용 증가, 총매출액 약 109억원(2.7억원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중에도 고용·매출 성과 소폭 상승 및 대다수 기업 종사자 고용 유지

사회적 임팩트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증대, 비즈니스모델 다양화 등 도약의 계기 마련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솔루션을 제공

ESG경영, 특히 환경에 초점을 둔 솔루션으로 ESG 사업으로 확대·전환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ESG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동력 자금 지원으로 사업의 확장성 도모

“KDB나눔재단의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은 현장에 꼭 필요한 기계 구입이나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어서 사업 확장과 운영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기업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후속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 할 수 있고, 기업이 속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컨설팅 기회를 제공해 주어, 저희 기업에 지속가능한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원기업 소감)



KDB나눔재단에서는 소외계층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시설비와 기자재 구입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에너지 분야 등 ESG 기반의 소셜 미션을 가진 기업을 지원하고, ESG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DB나눔재단은 더 나은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업들의 Scale up을 돕고,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가치를 공감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주관·운영 기관 및 멘토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DB나눔재단
대리 이선형





사업기간	2011년 ~ 현재
협력 파트너	주최 LG전자, LG화학, 주관 사단법인 피피엘, 엠와이소셜컴퍼니 후원 고용노동부, 환경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위원회 기업·정부·시민사회·투자사·학계 12개 기관으로 구성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학회, AVPN한국대표부, CSR임팩트, 공공디자인이즘, 비즈나이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지속성장본부, LG전자 사회공헌팀, LG화학 CSR팀, 사단법인 피피엘, 엠와이소셜컴퍼니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
지원대상	관련법에 근거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소셜벤처판별기준표 완화)
웹사이트	lgsocialcampus.com



파트너십 기업/기관

LG소셜캠퍼스는 LG전자와 LG화학이 기후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육성하여 생활 속 실질적 임팩트를 창출하도록 도와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플랫폼입니다. 13년간 금융지원, 성장지원, 인재육성, 공간지원을 통해 기후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표

신규 기후환경분야 LG소셜펠로우 15개소 중 3개소 Series A 투자유치 달성
투자유치 | 최소 15개소 이상 선발하고, 그 중 20% 이상을 Series A 투자유치

LG소셜펠로우 170개소 중 기후환경분야로 분류된 기업 10%를 비공인인증 진행
비공인 | LG소셜펠로우 170개소 중 3년간 18개소 비공인인증

사업 내용

- 금융지원** 혁신적이고 공익성이 큰 친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기후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5천만원 이상 지원
- 공간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및 벤처기업에 독립 사무실 및 회의실, 교육장, 휴게공간, 코워킹 공간 등 다목적 공유공간 고려대학교 산학관 738평 제공
네트워킹 지원 및 다목적 행사용 교육장 대관 운영
- 성장지원** LG소셜캠퍼스 지원기업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현안 진단, 우선순위 문제도출 및 컨설팅 방향 설정하는 합동컨설팅과 서비스디자인 혼합금융 오픈이노베이션 지속 가능성 4개 모듈별 개별맞춤형 컨설팅 및 투자R 및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및 LG전자, LG화학과의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밋업데이 개최 등 펠로우 기업 성장 가속화 프로그램 운영
LG전자노동조합 생산성 향상 컨설팅, 지원기업 대상 워크숍을 통해 비전 공유 및 네트워킹 지원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성장 및 비전 공유
워크숍을 통한 지원기업 간 사업 공유 및 네트워킹 지원, 사업 및 제품 홍보
- 인재육성** 친환경 및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1분 1초 영화제', '로컬밸류업'
친환경 및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초·중·고·대학생 대국민 공모전 1분 1초 영화제 5회
LG전자/LG화학 지역 사업장 창원, 여수 지역 내 사회혁신가 청년 양성 로컬밸류업 5회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필요한 우수 인적자원 양성 및 사회적경제 기업에 연계하는 소임스쿨 2기

추진 전략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플랫폼

미션 기후환경분야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육성하여 생활 속 실질적 임팩트를 창출하도록 돕습니다.

주요사업 금융지원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맞춤 금융지원
공간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 및 벤처기업 대상 사업 안정화를 위한 공간지원
성장지원 |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인재육성 |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프로세스



주요 성과

금융지원	총 260개 / 총 지원금 111억 7천 2백만 원
고용창출	1,708명(지원 전 1,453명 / 지원 후 1,708명 = 23.3% 증가)
매출	1,097억 1천9백만 원 (지원 전 약 769억 원 / 지원 후 약 1,097억 = 42.5% 증가)
성장지원	Leading Green Accerlating ('20~'22) · 누적투자유치 255.8억 · 평균 매출 206% 상승 · 신규고용창출 163명 · 수상인증지정선정출원수 180건 (생산성향상컨설팅 16회, 교육83회, 해외연수 6개국 146명, 네트워킹 77회, 소셜체험단 38회, 참여 190명 지원)
공간지원	· 프라이빗 오피스 업무공간 및 회의실, 코워킹, 교육장 등 공간지원 (지원 기업수 69개소) · 고려대학교 산학관 5층 738평(2,439m) · 전문컨설팅 총지원금 1,350만 원 / 45회 진행 / 18개 기업 참여 · 83명 참여 / 협업프로그램 4개소 지원
인재육성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 총 3,767명 참여 · 1분 1초 영화제 2,131명 참여, 1억3,380만 원 지원 / 총 1,677건 접수 · 로컬밸류업 창원, 여수 등 지역 259명 참여 / 총 1억5,430만 원 지원 · 소미스쿨 총 지원금 3,390만 원 / 총 64명 참여, 파일럿 프로그램 16개, 총 교육시간 126시간

사회적 임팩트

2022년까지 진행한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한 친환경 누적성과

2022년 LG소셜펠로우 12-1, 12-2기 총 10개 기업은 투자유치 137억 3천만 원, 신규고용 창출 70명, 매출 229.8% 상승, 수상/인증/지정/선정 88건을 받는 성과를 거두는 등 급증하는 친환경 솔루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장 역량을 키웠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LG소셜펠로우에 참여한 기업은 총 170개소이며, 2012년부터 친환경 솔루션을 통해 이산화탄소 190,912톤 / 플라스틱 82,594kg을 감축하는 환경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융지원 | 12-1, 12-2기 인센티브협약식



성장지원 | 12-2기 킥오프 세리머니



인재육성 | 1분 1초 영화제



인재육성 | 로컬밸류업(여수,창원) 합동 발대식



개별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오픈 이노베이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지원한 LG소셜캠퍼스는 친환경 사회적경제 영역의 건강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필요한 실질적인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인재육성, 성장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LG전자 사회공헌팀
책임 **최건**

LG화학 CSR팀
책임 **이영준**





사업기간	2015년 ~ 현재
협력 파트너	SK, 사회적가치연구원
파트너십 유형	SE생태계 조성, SE성장지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웹사이트	socialincentive.org



파트너십 기업/기관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2018년에 SK에서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이를 함께 할 사람들을 연결하고 확장하고자 합니다. SPC 프로젝트를 비롯한 사회적 가치측정 관련 연구, SK멤버사의 DBL(Double Bottom Line) 측정 연구 등을 수행하며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소셜 밸류 허브를 지향합니다.

목표

SPC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화폐화 측정,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의 인센티브 보상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측정: 사회성과의 화폐화 측정(기업의 경영환경 분석 및 개선점 도출)
인센티브 보상: 측정된 사회성과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상(SE의 현금흐름 개선, 동기부여)

사업 내용

SPC를 통한 SE의 사회적과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개요 2015년 SPC 프로젝트 론칭 이후, 매년 참여기업을 모집함. 2023년까지 총 368개 기업이 참여. SPC 참여기업들은 총 3,948억 원의 사회적과를 창출했으며, 사회성과에 비례하여 총 603억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
-------------------------------	--

지향 목표

SPC 측정효과와 인센티브 효과를 SPC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SPC 확산을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

SPC 연구성과	하버드 비즈니스 사례연구(Serafeim, 2020) SK에서 진행하는 SPC 사업에 대한 전반적 소개 SPC 효과성 연구(정선문, 신재용, 2021) SPC의 측정효과, 인센티브 효과(상관관계)를 검증 2020년 선발 기업부터는 무작위 대조 실험(RCT) 배정을 통해 SPC의 인센티브 효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히 검증
----------	--

SPC 확산을 통한 지자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 성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 파트너십 체결 및 SPC 측정-보상 체계 확산하기 위한 노력:
화성시('22~'24년) 협력 사업 진행 중이며, '23년 초 경남도, 춘천시, 전남도, 제주도와 협약 안료

추진 전략

SPC 1단계 실험	2015년 1기 선발을 시작으로 SPC 측정-보상 인센티브 실험의 원형 마련
SPC 2단계 실험	2020년 선발부터 무작위대조실험(RCT) 설정을 통해 효과성 입증 중
향후 방향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보상(또는 지원정책)의 법제화 방안, 사회적 가치 거래소 도입 방안, 사회적 가치 거래 시장형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대응

프로세스



주요 성과

23년까지 기업 참여 사업성과	사회성과 창출 사업성과	인센티브 지급 사업성과
총 368 개	총 3,948 억 원	603 억 원

SPC 효과성 검증논문 대표 연구성과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in Mission-Driven Firms (2022, Sun Moon Jung, Jae Yong Shin)
-------------------------	---

사회적 임팩트

사회성과인센티브(SPC)는 사회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독창적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창출한 사회 성과를 가시화하고, 해당 성과에 비례하여 차등으로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사회성과의 정확한 측정과 비례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투자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기대합니다.



SPC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여 측정하고, 측정된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여 측정하는 정량적 SV 측정의 컨센서스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화성시, 경상남도, 춘천시, 전라남도, 제주도 등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외로는 일본 펀드레이징협회(JFRA), 중국 등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국제적 확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SPC
팀장 권순범



로컬(농어촌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파트너십 기업/기관

한국마사회는 '말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유일의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입니다.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미션 하에 사회혁신기업들의 창업 생태계 발굴·육성·성장·자립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지원과 더불어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목표

한국마사회는 경마 및 말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촌대학생들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한 한국마사회 장학관 운영, 농어촌 교통약자들의 발이 되어 주는 국민드림마차 차량 지원, 문화생활이 제한된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농어촌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명력을 끌어올리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

성장자금 지원	4개사 농어촌 지역 프로젝트 최대 2,500만 원 자금 지원
역량강화 지원	기업별 1:1 컨설팅 지원(500만 원 규모)
홍보 지원	기관 보유 채널 활용 브랜드 및 지원기업 홍보
후속 및 사후지원	네트워킹 및 타 자원연계 지속

추진 전략

- 다문화 가정, 동물복지 연계성 등 농어촌 지역 이슈를 고려한 기업 우대 선정
- 수요 맞춤형 컨설팅 분야 설계 및 매칭
- 사회적경제 전문기관 연계 파트너십 구축
사업의 전문성, 확장성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함께일하는재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

사업기간	2023년 ~ 현재
협력 파트너	한국마사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재)함께일하는재단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활성화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프로세스



주요 성과

제시방식 1	<p>기업 성장 지원 농어촌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려지는 친환경 농산물 활용 제품 개발 · 관광 취약계층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농어촌 투어 프로그램 개발 · 토종 곡물 재배 확대를 통한 농산물 보호 및 농가 소득 안정화 · 다문화 가정 아동 언어능력 행사 및 심리치료 서비스 <p>기업별 컨설팅 지원 제품 생산관리, haccp 인증, 데이터 축적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컨설팅 설계 및 지원</p>
제시방식 2	<p>사회적경제기업 지원 4개사</p> <p>역량강화 등 컨설팅 총 25건(75h내외)</p> <p>지원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p> <p>지원기업 홍보 지원 약 10건</p>

사회적 임팩트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로컬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뿌리와 생명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교육, 문화적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사업공모 카드뉴스



대면심사 사진



기금전달식



로컬(농어촌지역) 활성화 지원사업은 한국마사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재)함께일하는재단이 협력하여 올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말산업의 근간인 농어촌 지역에 도움이 되어 지속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팀
팀장 **유인정**



신세계아이앤씨 MINI CONTEST

SHINSEGAE I & C



사업기간	2015년 ~ 현재
협력 파트너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지원대상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비즈니스의 중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웹사이트	shinsegae-inc.com



파트너십 기업/기관

신세계아이앤씨는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리테일 테크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ESG 경영 7대 핵심가치를 선정하고, ESG 전담조직이 핵심가치 실천을 위한 추진 과제를 설정, 실행함으로써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문제 해결 파급효과 강화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를 통해 지원금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사업 내용

성장지원금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판로개척, 매출 채널 확대 등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성장지원금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수요조사에 따라 맞춤형 멘토 매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후속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제조/판매/유통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통 ERP 솔루션을 무상 지원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 지원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원기업 간 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추진 전략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집행 부담 최소화	신청단계 사업 참여 신청서 간소화, 제출 서류 최소화 등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 집행단계 집행 서류 제출 최소화 등 선정기업의 지원금 사용 자율성 보장
제한 없는 지원 기업 형태	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비즈니스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한 기업 지원 - 소셜벤처, 비영리 스타트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기업 형태에 제한 없음
사회적경제 전문 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사업의 공정성, 전문성, 확장성 제고를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업 진행

프로세스



주요 성과



사회적 임팩트

신세계아이앤씨는 지난 9년간 사회적경제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판로 개척, 매출 확대 등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임팩트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MINI CONTEST 참여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종합해 보면 연간 50,000명 이상의 취약계층 수혜자에게 심리 상담, 교육, 배리어프리, 돌봄 등의 제품 및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고용 61명을 포함하여 약 6,000명의 취약계층에 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페트병을 100만개, 쓰레기는 약 20톤 재활용하여 결과적으로 540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약 생산자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여 50개 농가 대상으로 6억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예술가를 대상으로 총 15억원 이상의 소득을 얻도록 지원했습니다.

제품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환경영향 저감	기타
심리상담 5,000명	취약계층 고용 61명+	페트병 재활용 100만 개	기부금 5백만 원
교육 35,200명	일자리 연계 5,790명	쓰레기 재활용 19.2톤	예술인 수익증진 15억 4천만 원
콘텐츠 제작 140개		CO2 감축 540톤+	농가 수익 증진 50개 농가, 6억 원
돌봄 35,000시간			
배리어프리 150곳, 10,000명+			

2023년 MINI CONTEST 모집 포스터



2023년 MINI CONTEST 지원금 전달식



2023년 MINI CONTEST 선정기업 발표



2023년 MINI CONTEST 지원금 전달



‘신세계아이앤씨 MINI CONTEST’는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집행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년 MINI CONTEST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세계아이앤씨 ESG추진팀
팀장 정연수



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하는 제3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및 제1회 Woman star 발굴 및 복지지원



사업기간	2021년 ~ 현재
협력 파트너	아마존웹서비스(aws),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지원대상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파트너십 기업/기관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로 삼성전자, SK텔로콤, 모더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둔 클라우드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AWS는 한국에서 지난 2012년 서울사무소를 열고, 2016년에 서울 리전(Region: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목표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DEI(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는 DEI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특히 IT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거나 여성 사회적기업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신규 사업인 ‘Woman star 발굴 및 복지지원’은 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 근로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성평등, 사회적약자보호, 다양성 제고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6개사(23년)) 성장 지원금 지원 기업당 500만원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Woman star 발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내 우수한 Woman star 발굴(10명) (23년) 복지 기금 지원 1인당 100만원 지원

추진 전략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여성 사회적기업가 및 IT 기술을 기반 비즈니스 모델 우대
사회적경제기업 Woman star 발굴 및 복지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내 우수한 Woman star 발굴 활동 격려 및 기업 내 핵심인재로서의 역할 독려 IT기술 기반 및 문화예술·돌봄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우대

프로세스



주요 성과

기업 선발 및 지원

21년
기업당 5백만 원
총 상금 15백만 원

3개 기업

기업 선발 및 지원

22년
기업당 6백만 원
총 상금 42백만 원

7개 기업

기업 선발 및 지원

23년
기업당 5백만 원
총 상금 30백만 원

6개 기업

Woman star 선발 및 지원

23년
1명당 1백만 원
총 상금 10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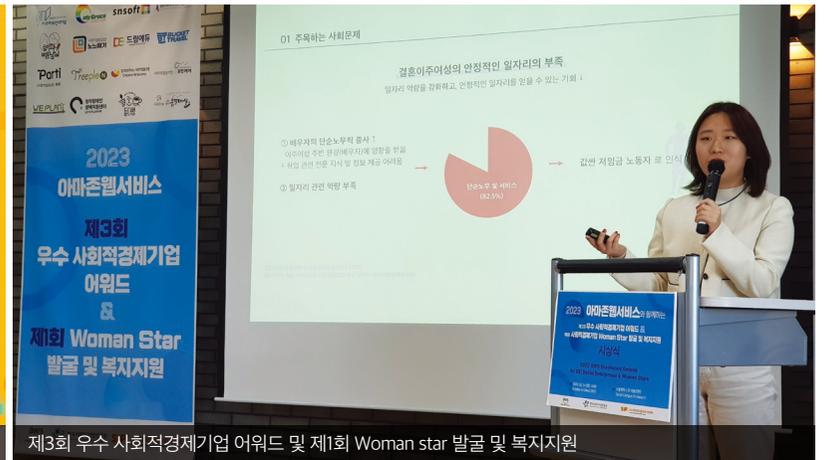
10명

사회적 임팩트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WS와 함께하는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는 DEI의 가치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의 토대로서 역할 수행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어워드를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와 성과를 국내외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사회적경제 기업의 여성 근로자를 발굴하여 기업 내 핵심인재로서의 역할 독려 및 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에 기여하고 있음



AWS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가 보다 포용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 아태지역 정책총괄
부문장 **퀀트 사이먼**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



사업기간	2022년 ~ 현재
협력 파트너	하나금융그룹,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이노소셜랩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지원대상	사회혁신기업, 고용취약계층
웹사이트	hanapoweron.com

파트너십 기업/기관

하나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룹의 큰 발걸음(Big Step for Tomorrow)이라는 ESG 비전을 바탕으로 ESG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탄소 경제체제 이행 촉진,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 투명성과 책임경영 기반의 의사결정 실행을 위한 9대 핵심 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이노소셜랩은 R&D를 통해 사회혁신을 지원합니다. ESG 교육 및 컨설팅, 기업 ESG보고서 작성 지원, 사회혁신에 최적화된 연구 및 리서치, 임팩트 측정 교육 및 컨설팅, 기업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인큐베이션과 코디네이팅, 출판 등의 도메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을 나누고 동시에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포용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탁월한 인재 채용을 통한 사회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사업 내용

사회혁신기업 인턴십 매칭	사회혁신기업 공개모집 및 선정(230개 사회혁신기업 선정) 사회혁신기업 인턴십 참여자 모집 및 채용(인턴십 230명 채용)
인턴십 및 사회혁신기업 지원	인턴십 기간(3개월) 생활임금에 준하는 급여 지원 다자녀가정(자녀 2인 이상 가정) 여성 인턴십 추가 지원금 지급(3개월) 사회혁신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역량 강화	사회혁신기업 인턴십 및 임직원 업무 교육 제공 사회혁신기업 채용 교육 제공
후속지원	정규직 전환 인턴십-기업 급여 지원(2개월) 정규직 전환 다자녀가정 여성 추가 지원금 지급(2개월)



추진 전략

참여기업과 인턴십 참여자의 욕구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채용 재량 위임

진입 단계	혁신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턴십 채용 지원
활동 단계	기업 전담자, 인턴십 참여자 모두의 성장 기회 제공
종료 단계	정규직 전환 성공 기업을 위한 후속 지원 제공

프로세스



주요 성과

인턴십 제공

수도권 소재 125개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105개

230개 기업

인턴십 일 경험 제공

장애인 6명
경력 보유 여성 114명
청년 110명

230명

정규직 일자리 전환

장애인 4명
경력 보유 여성 81명
청년 84명

169명

정규직 전환

후속지원 제공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

73.9%

사회적 임팩트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고용 취약계층과 인재를 찾기 어려운 사회혁신기업을 연결하는 인턴십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턴십 수료자의 74%가 정규직 전환에 성공해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동시에 사회혁신기업은 함께 성장할 동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혁신기업과 하나금융그룹은 정규직 전환 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면서 구체적인 솔루션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차원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소상공인 지원 등 일을 매개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인턴십의 피드백을 통해 높은 만족도와 착실한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경제-CSR 자원연계 사례

국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하고 기업이 사회공헌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협업으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논의와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홍보지원, 판로지원, 프 로보노 지원'의 방식으로 공공 및 민간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역할 하며 사회적 가치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홍보지원

유한양행 (희망사회 캠페인)

유한양행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건강의 벗' 지면을 통해 매월 사회적경제기업의 감동스토리를 구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벗 내 희망사회 캠페인 코너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지원

추진 실적
2014년부터 9년 동안 매월 한 곳의 사회적기업 홍보 지원(매월 15만부 내외 발간)

수서고속철도(SR) (SRT매거진)

수서고속철도에서 객차에 비치하는 SRT 매거진을 통해 매월 2곳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SRT 매거진 내 SR 사회적 가치 코너를 통해 Buy Social 캠페인과 더불어 매월 2개의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지원

추진 실적
21년 이래로 2년 동안 매월 1~2곳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홍보 지원 (매월 4.5만부 발간)

판로지원

SK스토아

2018년부터 사회적기업 행복나라의 상품 경쟁력 강화 사업과 SK스토아 자체 발굴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



추진 실적
2022년 기준 총 91회의 방송을 통해 26억 원의 매출 발생
2023년 9월까지 46회 방송을 통해 매출 15.8억 원 달성

KT알파쇼핑

매년 4개 내외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선정하여 '가치엔같이' 방송 시간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



추진 실적
2022년 기준 총 50회 편성을 통해 8000만원의 매출 발생
2023년 9월까지 38회 편성을 통해 매출 6600만원 달성

11번가

11번가 내 SOVAC 마켓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



추진 실적
2023년 설 명절 및 사회적경제 박람회 기간 중 진행된 온라인 기획전에서 4.4억 원의 매출 달성

롯데ON

롯데 ON에 사회적경제 조직 전용관을 개설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신규 입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판매 프로모션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



추진 실적
2023년 사회적경제 박람회 기간 중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7,000만원의 매출 달성

쿠팡

쿠팡 입점을 희망하는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입점 교육 및 사회적기업 전용관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원



추진 실적
2023년 307개 사회적기업 대상 전용관 입점 지원 및 기획전 통해 5800만 원의 매출 달성

코트라

코트라는 수출 초기 단계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진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추진 실적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바이어 발굴 및 협상,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등 글로벌 마케팅 7개 체크포인트 중심의 실무교육 및 1:1 맞춤형 컨설팅 추진

프로보노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추구하며 그 일환으로 2020년부터 '프로보노 봉사단'을 통해 임직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임직원과 함께 사회적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능력 향상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 **지원 분야** : 인사, 노무, 사업기획 및 전략, 재무회계, 홍보·마케팅, 국내외 영업

추진 실적

프로보노 숫자(누적) 56명	매칭기업 숫자(누적) 21건
프로보노 숫자(23년) 10명	매칭기업 숫자(23년) 5건

포스코경영연구원
X
가톨릭대학교

포스코경영연구원과 가톨릭대학교가 함께 2021년부터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및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 가톨릭대학교 사회혁신융복합전공 학생들과 함께 포스코경영연구원 임직원이 팀을 이루어 프로보노 활동 지원
- **지원 분야** : 마케팅 및 통상, 글로벌 진출 전략, 에너지와 친환경(탄소중립), 제조, 고객 및 유통 채널 관리

추진 실적

프로보노 숫자(누적) 81명	매칭기업 숫자(누적) 19건
프로보노 숫자(23년) 22명	매칭기업 숫자(23년) 5건

코오롱

코오롱은 임직원으로 구성된 코오롱 사회봉사단 프로보노가 청년 소셜벤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코오롱 임직원들이 참여기업의 문제 해결 및 비즈니스 스케일업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 **지원 분야** : B2B 영업노하우, 홍보 및 마케팅, 중장기 경영전략 및 BM 수립, 재무, 회계 등

추진 실적

프로보노 숫자(누적) 38명	매칭기업 숫자(누적) 12건
프로보노 숫자(23년) 10명	매칭기업 숫자(23년) 3건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동천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단을 양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단 양성 및 교육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변호사 프로보노 매칭 및 자문 활동

추진 실적

프로보노 숫자(23년) 13명	매칭기업 숫자(23년) 15건
------------------	------------------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사 프로보노단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인사·노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 전국 사회적기업 대상 인사 노무 분야 프로보노 매칭 및 자문 활동

추진 실적

프로보노 숫자(누적) 153건	매칭기업 숫자(누적) 162건
프로보노 숫자(23년) 41건	매칭기업 숫자(23년) 6건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사업 운영 중에 직면하게 되는 계약, 등기 등 법률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 사회적기업 대상 법무 분야 프로보노 매칭 및 자문 활동

추진 실적

프로보노 숫자(누적) 95건	매칭기업 숫자(누적) 46건
프로보노 숫자(23년) 18건	매칭기업 숫자(23년) 4건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상표 등록 및 출원, 저작권 분쟁 등 사회적기업의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 사회적기업 대상 지적재산권 등 관련 분야 프로보노 매칭 및 자문

추진 실적

프로보노 숫자(누적) 94명	매칭기업 숫자(누적) 164건
프로보노 숫자(23년) 28명	매칭기업 숫자(23년) 4건

[토론]

2023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 포럼 연결, 이음과 맺음

2023년 11월, 기업 사회공헌 실무자 70여 분을 모시고 2023 컬렉티브임팩트 창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컬렉티브 임팩트 포럼은 “협력”을 주제로 그 대표사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의 경험과 이로 얻은 성장과 고민을 패널과 플로어가 함께 토론했습니다. 토론의 일부를 공유합니다.

- 진행** 고대권 | 이노소셜랩 대표
- 패널** 서정주 | 한국에자이 기업사회혁신 이사
- 안수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팀장
- 이미지 | 무신사 어스 카테고리 오너
- 이순열 | 한국사회투자 대표



고대권 여러 사례의 발표를 통해 협력의 다양한 차원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협력을 잘하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순열 제가 요즘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사회경제조직 지원사업의 성과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후원과 사업기획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실제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소셜벤처, 사회경제조직들 사이에서 명료한 성과에 대한 얼라이언스 (allianc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과 자원(resource), 그리고 협업을 결국 무엇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과 답을 계속 제기하면서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나 협업의 한 축인 기업들은 최근 ESG 경영을 요구받고 있고, 사회공헌활동도 이 맥락에서 성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주제 중심의 협업입니다. 우리가 협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프로젝트 레벨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직 우리가 많이 시도해 보지 못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하나의 주제나 이슈에 대한 여러 기업의 참여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나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재단이나 기업이 나서서 창출할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입니다. 여러 자원을 가진 조직이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사례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협력이 단순한 행정적인 더하기
에 그치고 마는 사례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협력은 단순히 자원
과 자원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해진 자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
다. 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듣는 능력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목표
로 하는지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자원을 투입할 테니, 당신들은 당신들
대로 하고자 하는 걸 하세요 식의 협력에 그치고 맙니다. 깊이 공감하고 교감 되지
못하는 활동은 결국 단기적인 성과에서 멈추고 맙니다. 실무의 차원에서 굵리스닝
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에 에너지를 더 투입할 때 확실히 더 좋
은 성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안수진 저도 문제에 포커스된 이니셔티브 모델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얼마 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노소셜랩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시범적으로 추진
했습니다. 두 가지 주제(순환경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한 활동 경험
이 있는 기업, 투자자, 사회적기업 등 솔루션 조직, 정책조직이 모여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얻은 발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내용들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이미 다른 조직은
해결하고 있다거나, 우리가 지금 원하는 자원과 프로그램을 저 조직은 가지고 있다
거나 하는 것들이 발견된 겁니다. 이 단계에서도 의미가 있었지만, 이것이 스노우볼
처럼 뭉쳐지며 자연스럽게 굴러가려면 시간, 노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 둔다고 협력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협력에 대한 상상, 이 상상
을 분업과 논의, 체계와 역할로 바꿀 수 있는 일상이 필요합니다.

서정주 협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아젠다를 명확히 가지고, 서로의 미션과 비
전을 이해하고 공동의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암 생존
자 리빙랩을 하면서 함께 하는 분들이랑 시스템 전환, 시스템 체인지 맵을 함께 그
려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태계 안에 암 생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맵으로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역할을 고민했는데 비주얼화해서 같
이 추진해 봤던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 아젠다별로 환경, 돌봄, 등등의 전환해야
하는 것들의 맵핑을 해보고 역할들을 나눠 콜렉티브 임팩트를 소주제별로 해볼 수
있는 것을 연간의 꾸준한 과제로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편
요즘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가 너무 중요하데, 현장에서는 3-4개
월, 1년 프로젝트로 짧은 기간 동안 효과성을 검증해내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
다. 가시적인 수치로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창의적으로 평가하고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와 스케일업에 대
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고대권 저는 협력하고자 하는 각자가 스스로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협력은 결국 우리 조직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목표와 기득권에 집중하던 에너지를
더 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인데, 더 큰 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
직의 의사결정 행태나 일하는 방식, 철학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인데 더 큰 일을 해내려고 하면 결국 협력은 단순한 배분으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
요.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분들이 현장에서는 일종의 코디네이터 활동들을 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디네이터들의 역량으로 협력의 에너지를 전환시키
는 것은 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깊어지고 길어지고 멀리 갈수





록 협력에 임하는 스스로들이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나 경험,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거나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플로어 중앙부처에서 나왔습니다. 민간에서 많은 활동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공공 또는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지금 민간에서 하는 일을 잘 촉진할 수 있을까요?

서정주 공공과 연결이 간절했는데요. 좋은 모델을 찾아내서 제도화 과정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에 민간조직과 기업 등의 활동가들을 모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모임이 있어 참여해봤습니다.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모임에 공공조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컬렉티브 임팩트가 말 그대로 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가끔 공공에서 주제의 중대성이나 참여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공공의 논리에 갇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는 암에 걸려서 치료를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암생존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 아젠더로 공공을 만나 이야기하면 '청년실업이 문제인데 암환자 일자리까지 만드는 것까지 공공에서 나서긴 힘들다'라는 식의 피드백을 듣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공감하고, 듣고, 그 속에서 기업이든 활동가든 이 문제와 연관된 이들과 소통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순열 대기업, 스타트업, 사회혁신조직의 협업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협업사례가 잘 나오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보고 공공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그 서비스모델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의 관계성, 네트워크 조성력 등은 민간단체와 비교할 수 없게 큼니다. 모든 네트워크와 서비스 수요가 공공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공공에서 그

모델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좋은 모델이 발굴되면 민간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지원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문제 중심의 이니셔티브나 민간을 모아주거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잘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플로어 저는 그룹사에서 컬렉티브 임팩트 담당자로 매년 그룹사의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룹사의 전문역량과 외부 비영리기관을 합쳐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임팩트를 창출할 사업은 많은데 한편으로 회사 입장에서 비즈니스 가치가 없으면 선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면서 성과도 창출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서정주 비즈니스 가치가 한 번에 딱 측정되어서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비즈니스 가치 창출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발견을 위해서는 우리 조직이 가진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예자이의 경우, 보건 의료 영역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와 협력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끔 사업부서에서 어느 부처에 갔더니 한국 예자이의 사회혁신프로젝트를 이야기하더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 기업과 무언가를 협력하는 것이 정당하라는 질문을 가진 이들에게 이런 사회 가치 관련 실적과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을 제대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들은 비즈니스에서의 허가 등에 사회가치활동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니즈를 잘 파악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안수진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을 기업의 경제적 가치 제고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사회적기업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엔 우수한 기술을 가진 ICT기업들도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기업이라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 제고는 것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협력 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품이 잘 팔리거나 홍보가 잘 된다거나, 어떤 인허가에 유리하다거나 하는 식의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무신사라는 플랫폼에서 무엇을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가 커질까 하고 고민해봤습니다. 이런 고민을 시뮬레이션해서 무신사 어스가 태어났습니다. 무신사 어스가 생겨나기 전에 무신사에 입점했던 소셜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이 브랜드가 무신사 어스를 통해 큐레이션을 받아 재조명되고 콘텐츠와 기획전 등에 참여하면서 거래 가치가 10배 넘게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신사에 입점한 8천 개의 브랜드 중 소셜 브랜드를 볼 수 있어 좋았다는 고객의 평가를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이해관계자인 브랜드와 고객이 다 포함되는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조금 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고한 대표적인 사례로 흔히 파타고니아를 이야기합니다. 파타고니아 사례를 보면 어떤 변화는 기업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들이 함께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이 발견됩니다. 이 파트너들은 파타고니아가 진심으로 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파타고니아가 페어망을 활용해 모자챙을 만들 때, 페어망으로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투자하고, 또 깨끗한 페어망을 구하기 위해 페어망을 수거하는 어민들의 조합에서 어망을 구매하는데, 현실에서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파타고니아는 이 실험을 해내겠다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집중합니다. 오늘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례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큰 사업이지만, 사업을 시행했던 첫해에는 '이 사업이 실제로 굴러감(working)'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봤다는 부분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당장 내나라고 하는 것보다, 사업의 각 단계에 적절한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그 성과를 하나씩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노정하는 사고방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대권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님의 총평을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과거엔 꿈과 이상을 선택하면 '철없다'는 이야기를 들곤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이상적인 생각들이 현실이 되고 큰 파도가 되는 변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ESG를 갑자기 폭탄을 맞은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돈도 잘 벌고, 착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는 이런 방향으로 서서히 흘러왔습니다. 유럽은 수백 년 동안 협동조합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와 다르게 강력한 발전국가 모델의 흔적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도 인증하고, 사회적기업도 인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온 많은 논의들이 제도적 맥락과 사회변화의 커다란 물결들을 함께 바라보며 녹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리,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을 구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도 효율성을 관심을 가지고, 영리기업도 가치를 고민하지 않으면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수렴 현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자칫 전면에서 나서서 오히려 판을 깨뜨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개입에 대해 철저히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 혁신 클러스터를 배우려고 했는데 잘 되지않은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발전국가 모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해외의 모델을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맞는 독창적이고 한국적인 모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핵심은 네트워크, 본딩(bonding), 브릿징(bridging), 링킹(linking)입니다. 끈끈하게 얽히기도 하고 생태계 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고, 전혀 이질적인 생태계 내에서 서로를 링크해 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앙트프러너라고 할까요? 이런 존재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풍부한 사례를 보고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CSR 협력 사례

건강한 사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민간기업을 만나봅니다.

자원과 사회적경제를 잇는 중간지원조직의 CSR 협력사례를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파급력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빈 고리를 채우는 사회혁신 중간지원조직 5곳의 주요 활동을 소개합니다.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이사장 김용덕

bss.or.kr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2002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금융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 인프라 등 안정적인 역량을 보유한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공감, 투명성, 전문성, 혁신을 핵심 가치로 두고 **돈이 아니라 “연대”를 저축하고, 이자가 아니라 연대 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금융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마이크로파이낸스	·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창업자금, 기술 등 통합지원 ·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자금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의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및 학자금 대출 사업 관리
창업 교육 및 마이크로크레딧 컨설팅	· 마이크로크레딧·사회적기업 전문가 양성 · 영세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창업·경영개선 교육 및 컨설팅 · 마이크로크레딧 모델 확산을 위한 전국적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이전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운영을 통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 ·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 사회적경제조직 경영개선 자금 지원 · 전문 멘토링, 경영컨설팅, 교육, 자원연계 등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지원 · 사회적가치를 위한 소셜벤처펀드 개발 및 운용
청년 지원	· 청년통합지원 플랫폼 운영(금융·공간·성장지원, 인재육성) · 청년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자립 준비 청년 지원	· 자립 준비 청년 자립역량 및 기초자산 형성 지원 (재무코칭, 자립자금) · 자립 준비 청년 주거지원(임차보증금 대출, 사회주택 입주)
퇴직자 지원	· 은퇴 계층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연계지원
세대 특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주요사업

금융 취약계층 자립 지원	· 현대자동차그룹과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홍보 지원 사업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업 · 두나무 다중부채 청년 자립 지원 「넥스트스테퍼즈」 사업 · JP모간 한 부모 여성 가장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사회혁신조직의 창업 및 성장지원	· 사회적기업 후속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금융 지원 · 청년 소셜벤처 창업 및 성장 지원
공익법인, 공익 활동가 발굴 및 지원	· 비영리 부문 공익활동 지원 · 삼성생명, 행정안전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 · 복지시설 지원
청년 취·창업 지원	· 아름다운가게 보호 종료 5년 이후 청년 플랜V 비전지원 사업 · HSBC 저소득 청년 창업가 지원 사업 · 한화생명과 자립 준비 청년 지원사업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 KDB나눔재단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알파라운드 청년소셜벤처 대출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년 ~ 현재
협력 파트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파트너십 유형	금융지원
지원대상	청년고용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웹사이트	lissc.or.kr

파트너십 기업/기관

생명보험은 뜻밖의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금융산업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 존중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구체적, 지속적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사회 각지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목표

청년소셜벤처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금융기관 자금(고금리 및 담보 요구)와 다르게 저금리와 관계금융을 활용한 무담보 대출, 정책 기관 자금(사용처 제약과 많은 행정 절차)과 다르게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상시 대출 방식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사업 내용

사회적경제조직 중에서도 청년소셜벤처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 만 39세이하 청년을 3명 이상 고용하고 고용인원 중 청년 비중이 50% 이상)

서류-현장-최종심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대출적격 판단을 받는 경우, 15백만원~35백만 원 수준에서 1% 금리(6개월 거치, 30개월 원리금균등상환)로 대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셜벤처 대상 자금지원 기간이 설정된 공고방식으로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여 기업들이 필요할 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시대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 전략

1단계	심사	신청 기업 3단계 심사 · 서류심사 상시 접수 서류 대상 정량적·정성적 서류심사 진행 · 현장심사 서류심사 합격 기업 대상 담당자 현장심사 진행 · 최종심사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출 적격 심사
2단계	협약/대출	협약 및 대출 · 심의위원회 이후 기업별 결과 통보 · 개별 협약을 통해 신속한 대출금 지원
3단계	사후관리	3년간 사후관리 · 매달 상환 현황 체크 · 반기별 기업 현황 체크(매출/고용 등 사업 성과)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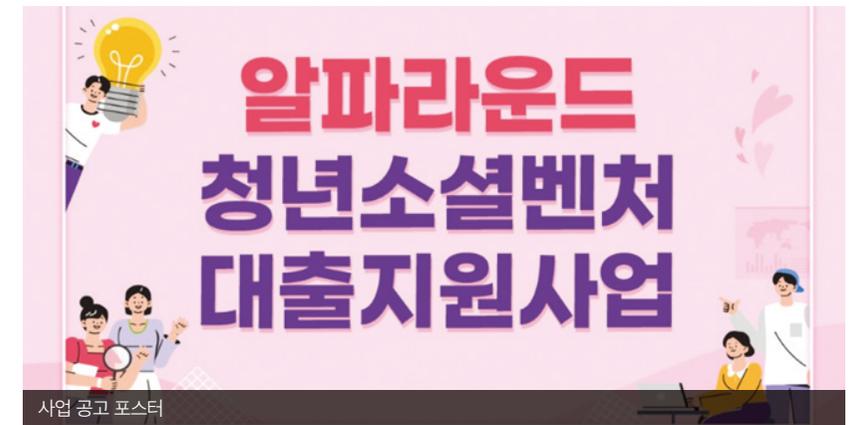


주요 성과 / 사회적 임팩트

23년 9월 말 기준으로 60개의 청년소셜벤처를 대상으로 1,460백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당 평균 2,430만원의 대출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상환율은 8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 말 기준으로 60개 기업 중 폐업을 한 기업은 1개사로 폐업률은 2% 미만입니다. 이는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폐업률 66.2%*에 비해 매우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뉴스 기사 참고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614001549047>



자금공급자들이 중심이 되는 공모방식의 대출이 아니라 자금수요자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신청하는 상시대출 방식을 통해서 청년소셜벤처들이 정말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지속 가능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2 ~ 현재
협력 파트너	한국지역난방공사
파트너십 유형	창업벤처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대상	디지털경제·탄소중립 사회적경제조직 중 창업·벤처기업
웹사이트	kdhc.co.kr/kdhc/main/main.do

파트너십 기업/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절약과 국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1985년 창사한 이래,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집단에너지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로 지속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 창출에 앞장서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청렴과 상생노력,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

디지털경제·탄소중립 분야 소셜벤처를 발굴하여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육성자금을 통해 창업·벤처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합니다.

자격요건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 공고 시작일 기준 법인설립 7년 이내이면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가능 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공고 시작일 기준 벤처 기업확인서 또는 벤처 확인 종합관리시스템 조회자료 제출 가능 기업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업 내용

디지털경제·탄소중립 분야 각 10개 기업(총 20개사) 선발 및 기업별 850만 원 자금 지원

	Track 1	Track 2
지원분야	디지털경제 (10개社)	탄소중립 (10개社)
지원규모	기업당 8.5백만 원 무상지원	기업당 8.5백만 원 무상지원
자금용도*	디지털 기술 기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고도화	에너지-환경 기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고도화

추진 전략

구분	지원규모	내용
1단계 협약	20개소 (170백만원)	당기관-지원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지원기간) '22.11. ~ '23.04 (6개월) · (지원규모) 기업당 8.5백만 원 · (자금용도) 재료비, 외주용역비,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기계장치 설치·구입비 등
2단계 사업수행	20개소 (-)	사업비 집행 및 모니터링 · (지원기업) 지원금 집행 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 · (당기관) 예산 변경 신청 시 검토 및 승인
3단계 결과보고	20개소 (-)	사업 수행 결과보고 제출 · 매출/고용 지표 및 기타성과 최종 보고

프로세스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공고	선발	지원기업 협약	사업수행	성과점검	결과보고
온라인 접수 ~'22.11	서류-현장-최종(면접) ~'22.12	지원기업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12	사업비 집행 '22.12~'23.04	성과 수집·점검 ~'23.05	최종보고 '23.05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지원기업	주관기관·지원기업	주관기관·지원기업	주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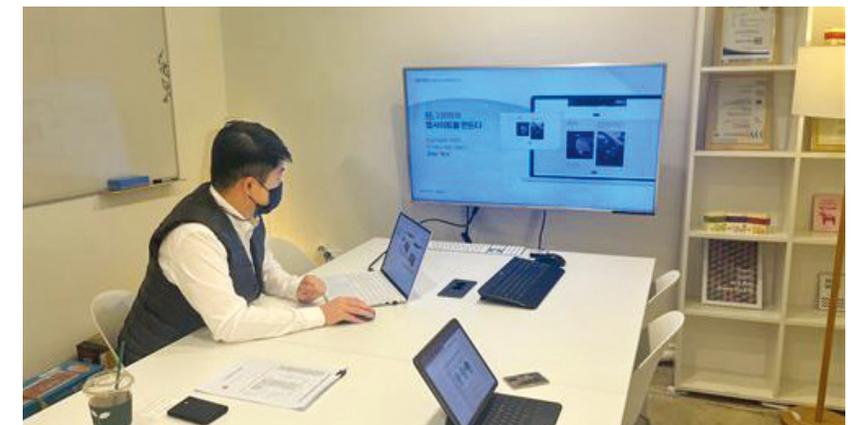
주요 성과

매출액 달성	고용 성과 달성
<p>1,763 백만 원 증가</p> <p>4,238백만 원 → 6,001백만 원</p>	<p>고용 인원 9 명 증가</p> <p>185명 → 194명</p>

사회적 임팩트

- 지적재산권 및 기타 지원 사업 등
- 지적재산권 12건 취득(특허출원, 상표등록, 소부장 인증 등)
 - 지원사업 선정 및 수상, 투자유치, MOU 체결 합계 60건
→ 지원사업 선정 38건, 수상 및 투자유치 10건, MOU 체결 12건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2.10.13.(목) ~ 11.09.(수) 18:00



사용방식이 경직적인 다른 자금 지원들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창업벤처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사업을 고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에너지 효율·ESG 분야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넘어서 사업 컨설팅, 투자 기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팀장 류하린



(재)함께일하는재단

WI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이세중
hamkke.org

함께일하는재단은 실업 극복이라는 사명을 안고 첫발을 내디뎠던 2003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전념해 온 민간 공익재단입니다. 재단은 청년, 여성 및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혁신가 대상 발굴·육성·성장·자립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도화	· 계층별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연계 지원 ·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 구축 및 확산	· 상생협력 일자리 모델 개발 및 모델 확산 · 상생협력 일자리 모델 파트너십 구축
사회적경제(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 제고	· (예비)혁신 창업가 및 인재 양성 · 사회적경제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조성
사회적경제기업(혁신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차별화	·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장지원 · (판로특화) 국내외 판로지원 강화 · (금융지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주요사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공항 교통약자 이동서비스(포티케어) 지원사업(한국공항공사)

MG희망나눔 소설성장 지원사업(새마을금고중앙회)

코로나19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구글닷오알지)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 “오래오래 함께가게”(카카오페이)

로컬(농어촌지역) 활성화 지원사업(한국마사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8년 ~ 2023년(6기 진행 중)
협력 파트너	MG새마을금고중앙회, (재)함께일하는재단
파트너십 유형	SE성장지원(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및 예비 창업팀
웹사이트	mgse.co.kr



파트너십 기업/기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린, 휴먼, 소셜, 글로벌' 4대 사회공헌 핵심분야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과 ESG경영을 실천 중인 금융 협동조합입니다.

목표

소셜 미션 기반의 기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위한 임팩트 창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성장자금 및 간접 지원 프로그램, 관련 연계 자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균형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

- 성장자금 지원**
 -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및 임팩트 창출에 기여할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규모 자금지원(Starter 트랙)
 - 친환경, 장애인, 취약계층, 로컬, 문화예술 등 다양한 소셜미션 분야 성장기 임팩트 기업 대상 최대 5,000만원 규모 사업개발 자금 지원(Runner 트랙)
- 홍보지원**
 - 기관 홍보 채널을 활용한 기업 브랜드 및 스토리 홍보 (홈페이지, 매거진, 영상 콘텐츠, SNS 등)
 - 지원사업 브랜드 현판 등 지원기업 대외 신뢰도 제고에 기여
 - 지역상생의 날, 소상공인의 날, 사회적경제 주간 등 주요 기념일별 홍보이벤트 진행
- 판로지원**
 - 참여기관 및 지원기관 직접구매(이벤트/행사 경품 및 진행 물품, 고객 사은품, 디자인/콘텐츠 등 전문서비스 분야 외주) 및 콜라보 상품 개발 등
 -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및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
 - 참여기관 내부 폐쇄물 입점 연계, 구매 상담회 및 샘플 공급 (실행 예정)
- 네트워킹 지원**
 - 주체 간 협업 방안 논의를 위한 대표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현장 소통 간담회
 - 선배기업-후배기업 멘토링 및 소모임 운영 지원
- 역량강화 지원**
 - 초기 Starter 기업 대상 사업개발(고도화) 컨설팅, 공통 관심 분야 온/오프라인 교육 및 워크숍
 - 외부 투자유치 등 재원조달 방안 전문 컨설팅
- 후속 및 사후 지원**
 - 성과 우수기업 대상 시상
 - 기관 보유 자원 및 지원 프로그램 연계 (사회공헌 분야 협력 프로젝트, 국내외 판로 지원 프로그램 등)

추진 전략

지원기업 개별의 '생애단계' 및 산업, 업종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기업의 1차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 제안 및 실행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 동력 마련

기업 생애단계에 따른 지원트랙 세분화	육성기 스타터(Starter) 트랙 / 성장기 러너(Runner) 트랙 2개 유형으로 구분 선별
산업 및 업종별 맞춤형 자금 지원	외주 가공 및 용역, 원재료 확보, 특허 및 지식재산권, 전문기관 자문, 광고홍보, 사업화 자산 취득 등 산업 및 업종별 특징에 따라 예산 편성 재량 확대
수요 맞춤형 종합 지원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설계	자금 지원 외 홍보/판로/네트워킹/역량강화/자원연계 등 직간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프로세스



주요 성과

소셜 임팩트 창출 기업 조직 발굴 및 지원

130개사

2023년 신규 30개사 포함

신규 일자리 창출

약 **375**명

판로연계

94건

홍보지원

약 **1,650**건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70건

사회적 임팩트

민간 섹터의 대표적인 소셜 임팩트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망 기업들을 발굴하였으며, 기업과 협업 디자인 개발, ESG 분야 캠페인 및 관련 이벤트 실행 등 금융-비영리기관-기업-지역사회 참여 상생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와 기업, 새마을금고의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해당 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고유의 미션을 잘 수행하고 위기 환경 속 생존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자금과 기타 직간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22%의 매출 성장, 380여 명의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창출, 200억원 이상의 신규 외부자금 유치라는 지원기업 성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금융 및 지역사회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셜 임팩트 기업의 등용문과 성장 발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 기업성장팀
팀장 한정임



구글닷오알지 코로나19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



사업기간	2022년 2월 ~ 2023년 9월
협력 파트너	지원 구글닷오알지(Google.org) 주최 유스비즈니스인터내셔널 (YouthBusiness International) 주관 (재)함께일하는재단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
지원대상	사회혁신 창업가, 취약계층, 여성 창업가
웹사이트	flagup.kr

목표

함께일하는재단은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전념해 온 민간 공익재단입니다.

Google.org는 구글의 자선활동과 사회혁신을 담당하는 자선단체로 자본, 혁신, 기술 전문성을 결합해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인류가 직면하게 된 어려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Youth Business International(YBI)은 50여개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기업가 정신에 중점을 두고 청년 창업가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술과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가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심화 역량강화 과정과 밀착 지원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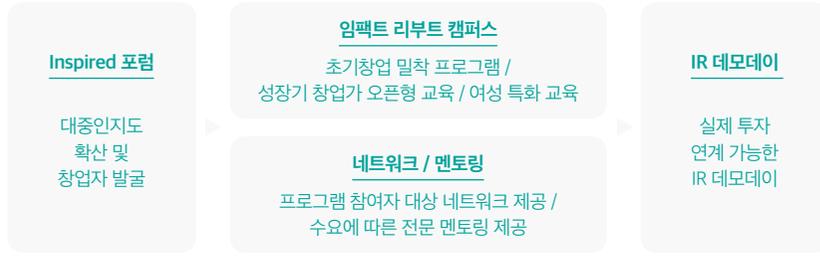
- 1)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취약계층(청년, 여성 등) 대상 창업가의 역량과 적응력 강화 지원
- 2) 코로나19 이후 폭넓은 사회 혁신과 변화 인사이트 제공을 통한 기회 창출
- 3)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가들을 위한 온라인 창업 교육 지원

사업 내용

- 인스파이어드 (Inspired) 포럼**
 - 사회 혁신리더 및 창업가 강연을 통한 인사이트 제공 및 잠재적 창업가 발굴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상을 조명하고 창업가들의 극복사례 공유
- 임팩트 리부트 캠퍼스**
 -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디지털 전환, 마케팅 등 운영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
 - 초기 창업 밀착형 프로그램(창업 교육, 고도화, MVP)
 - 성장기 창업가 오픈형 프로그램 (판로개척, 조직 운영, 디지털전환, 생산성 강화 등)
 - 여성 특화 프로그램(일-가정 양립, 소통 기술, 멘탈 케어 등)
- 네트워킹 및 멘토링 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여자 간 네트워킹 제공 및 수요에 따른 분야별 전문 멘토링
 - 창업가 협업 활성화 및 기업 운영 실무 역량 강화
- IR 데모데이**
 - 투자자 관점에서 사업 점검과 주요 성장 지표 등 관리를 통해
 - 투자유치 기회 확대



추진 전략



코로나19 극복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인사이트·지식공유 포럼(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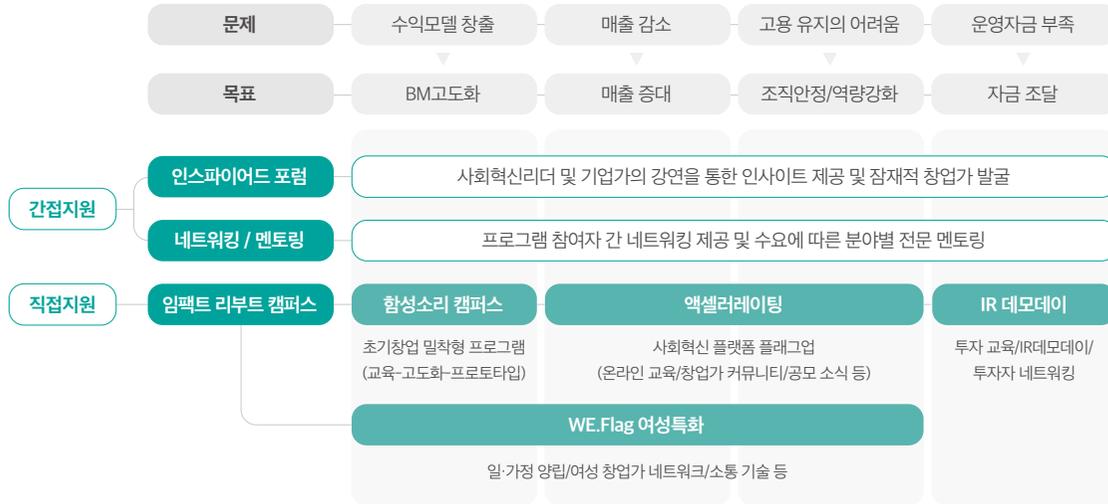
초기 창업가를 위한 온오프라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100명의 창업가 발굴)

네트워킹 10회 운영(150명 이상의 참여자 모집)

심층 멘토링 프로그램 매칭(100건)

온라인 강의 운영(수강자 400명)

프로세스



주요 성과

인스파이어드 포럼
참여자

2,087명

여성 창업가 특화 프로그램
We.Flag 참여 기업

25개 기업

임팩트리부트 캠퍼스
참여 기업

We.Flag 포함 134개 기업 109개 기업

IR 데모데이
참여 기업

35개 기업

창업가
전문 멘토링

188건 진행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자

197명

창업 온라인 강의
(액셀러레이팅)
신청자

1,184명

사회적 임팩트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가속화와 맞물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업가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창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적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특히, 창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청년,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팩트 리부트 캠퍼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창업 생태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존 전략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갖출 기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인스파이어드포럼, 네트워킹, 온라인 강의 등 간접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창업 트렌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 역량·창업 교육에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비)창업가들이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글닷오알지가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YBI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셜벤처 및 스타트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과 네트워킹을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포럼, 인큐베이팅, IR데모데이 등 12개의 직·간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총 3,216명의 창업가와 107명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셜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가치추구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축의 균형을 잡는 기술과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이원태



카카오페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협력 파트너	카카오페이, (재)함께일하는재단, (주)엠인터랙티브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목표

(주)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출범한 카카오의 테크핀 전문 자회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갑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왔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최초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 이후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등 기존 금융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며, 2018년 11월 투자 서비스를 시작으로 신용조회, 간편보험, 대출비교, 자산관리 등 전문 금융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금융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엠인터랙티브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사회적경제와 청년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과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오래오래 함께 가게’는 카카오페이와 함께일하는재단이 마련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오프라인 판매경로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상품을 보유하고, 유통채널 확대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여 제품 인지도와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

팝업스토어 운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제품 입점 · 1-2주 간격 신규상품 추가 및 체험프로그램 구성 · 입점수수료, 판매수수료 지원
홍보 지원	· 월 500만원 총 1500만원 상당 이벤트 경품 지원 · 구매/SNS인증/카카오페이 결제에 따른 이벤트 진행 · 언론보도 및 SNS 채널을 통한 홍보 진행
결제혜택 지원	· ‘카카오페이머니’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

추진 전략

준비단계	· 검증된 입점 기업 참여를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입점사 금융교육 진행
진행단계	· 팝업스토어 이벤트/프로모션을 통한 홍보 효과 ·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월별/주별 업데이트 운영
후속단계	· 우수브랜드 확보 및 판로지원 연계



프로세스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준비단계	도입단계	운영단계	종결단계
입점사 모집 진행완료	상품입고 ~07.25	팝업 오픈 ~08.01	재고수량확인/택배발송 ~11.10
조정계획 진행완료	OT/금융교육 07.26	팝업스토어 운영 08.01~09.30	최종정산 확인 11.17
	상품확인/포스등록 ~07.28	2차 팝업세팅 10.01~	최종대금지급 11.22
	팝업세팅완료 ~07.31	팝업 2차오픈 10.04~	
		팝업스토어 운영 10.04~11.03	

주요 성과

수수료 전액 지원

입점수수료 / 판매수수료 / 카카오페이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

이벤트 경품 지원

3개월간

총 **1,500**만원

소상공인 및 소기업

브랜드 참여

1차 **70**곳 / 2차 **50**곳

사회적 임팩트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래오래 함께 가게'는 판로개척과 함께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팝업스토어는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었으며, 한정적이었던 오프라인 판로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입점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이 필요한 생존 전략과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가게는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카카오페이와 함께 팝업스토어를 진행했습니다. 약 70개 기업 400개 상품을 선보였으며 가게에 방문한 분들을 위해 기념품과 이벤트도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 작은 부분에서도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주위 소상공인 사장님들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함께일하는재단 지역성장팀

팀장 **심재군**





공항 교통약자 이동 지원사업 “공항 포터케어 서비스”



사업기간	2017년 12월 ~ 진행중
협력 파트너	한국공항공사, (재)함께일하는재단, 리베라빛
파트너십 유형	SE발굴지원
지원대상	사회혁신 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교통약자
웹사이트	facebook.com/dobox.org?mibextid=ZbWkWL

파트너십 기업/기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경주, 군산, 원주까지 14개의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각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실업극복’이라는 사명을 안고 첫발을 내디뎠던 200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전념해 온 민간 공익재단입니다.

리베라빛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다’란 뜻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국공항공사, (재)함께일하는재단과 더불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입니다.

목표

-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이동권에 제한받는 모든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을 통한 불평등 해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설비 및 서비스 구축을 통한 이동권 강화
-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 구축: 서비스 제공 근로자의 50% 이상을 시니어로 채용
- 사회적경제 기업의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시 및 운영지원을 통한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 지원

사업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설비 구축

- 국내선, 국제선 방향 지하 구간 전동카트 배치
- 안내 데스크 내 전동·수동 휠체어 및 유모차 배치
- 교통약자 이동 지원서비스 예약 시스템 구축

국내/국제선 지하 이동구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자 배치(07시 ~ 23시)

50% 이상 시니어 근로자 채용

2022년 기준 근로자 총 23명 중 19명 시니어 근로자 배치 (기타 취약계층 3명)

서비스 제공 근로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안전, 서비스 등 전문 직무교육 지원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2022년 기준 99.2% 만족도 달성



추진 전략

공항 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비영리·민간 3자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

한국공항공사 | 공항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 총괄 및 서비스 수행 지원

- 공항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 총괄 및 재원 지원
- 서비스 지원실, 안내 데스크, 수행기업 사무실 등 김포국제공항 내 공간 지원

(재)함께일하는재단 | 공항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 총괄 및 수행기업 관리

- 사업 운영 총괄 및 사업 총 재원 운영
- 서비스 실적 및 근로자 운영 관리
- 수행기업 재원 사용 현황 점검

리베라빗(수행기업) |

공항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 직접 수행 및 서비스 품질과 근로자 관리

- 사업 직접 수행
- 서비스 수행 근로자, 시설물, 장비 등 수행에 필요한 자원 관리
-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한 현장 서비스 품질 관리

프로세스

서비스 모델 개발부터 실적 평가까지 총 12단계의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추진
(연속 사업으로 초기 1년 이후에는 8단계~12단계를 반복 추진)



주요 성과



사회적 임팩트

공공기관·비영리기관·민간기업 3자 협업 구조 정착

- 3자간 이해관계의 명확하고 구체적 분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개발 및 구축 (공공기관은 교통약자 지원, 비영리기관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은 이동 지원 서비스 관련 비즈니스 개발 및 수행)
- 협업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사업 운영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 개발

- 민간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 김포공항 및 인근 시설 이용 교통약자 서비스의 양적·질적 성장
- 사업 수행 전 연 100여건 서비스 제공에서 수행 후 연 150,000여 건 서비스 제공으로 크게 증가
- 99% 이상의 고객 만족도 달성

사회적경제 기업 비즈니스 성장 지원

- 보유 자원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국내 교통약자 인구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 시설 및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항 포티케어 서비스'는 공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장애인, 고령자, 교통약자의 이동을 도와주자는 고민에서 시작되어 벌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만 연평균 15만 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포티케어 매니저로 근무하고 계신 근로자 대부분은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로, 이분들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노후화된 전동카트 교체를 통해 서비스 안정화를 꾀했고, 올해는 국내 및 국외선에 전동카트 예약 서비스 키오스크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공항 이동 약자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함께일하는재단 일자리지원팀 매니저 **민세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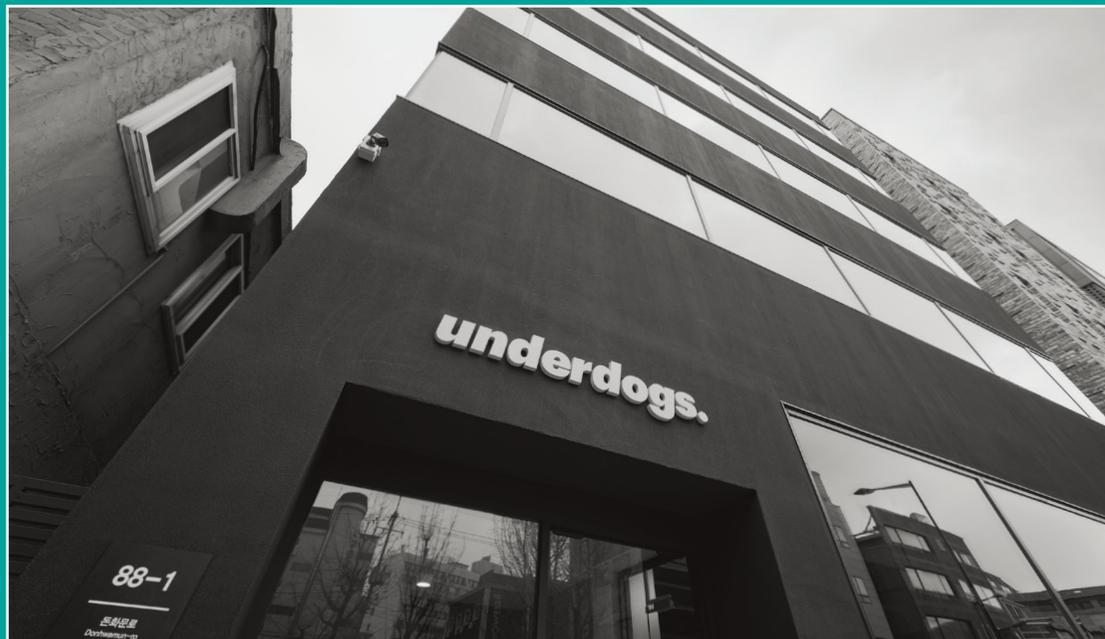


언더독스 주식회사

underdogs.

대표이사 **조상래**
underdogs.co.kr

2015년 4월, 언더독의 가능성을 믿는 창업가들이 모여 창업가의 동료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전·현직 창업가들이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와 실전형 코칭이라는 차별화된 교육방법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가진 창업가' 1만 3천 명을 길러내며, 창업교육 시장의 No.1으로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언더독의 가능성을 믿는 언더독스는 오늘도 창업가와 창업가의 가능성을 믿는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창업 교육 START-UP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SV 창업 교육 · 소상공인(SME) 성장 교육 · 로컬 비즈니스 특화 교육 · 대상별 맞춤 교육 · 사내벤처 육성 교육 · 단기 창업교육(해커톤)
기업 교육 HUMAN RESOURCE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 · 리더십 교육 · 공통 역량 교육 · 현업적용형 직무 교육 · 원스톱 법정 의무 교육
행사 기획 운영 EVENT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가 & 스타트업 행사(데모데이) · 온오프라인 융복합 세미나 · 자체 IP 행사(학술 포럼 및 컨퍼런스) · 전시 및 페스티벌형 프로그램 · 비즈니스 트립형 프로그램
동반 성장 서비스 BEYOND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컨설팅 · 파트너 성장 프로그램 · 후속 관리 · 전문 자료 발간

주요사업

- 하나금융그룹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 GS리테일 에코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 까르띠에 언더우먼 임팩트 커뮤니티
- 애그테크 청년창업 캠퍼스 NH Seed
- 네이버 SME 브랜드 런처
- 한국타이어나눔재단 드림위드 프로젝트
- SK E&S 로컬라이즈 군산

언더독스
사회적경제 CSR 협력사례

**GS리테일
ECO SOCIAL
IMPACT
PROJECT**

**GS리테일
에코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사업기간	2018년 ~ 현재
협력 파트너	GS리테일, (재)함께일하는재단, 언더독스
파트너십 유형	SE성장지원
지원대상	창업 1년 이상, 3년 미만의 환경 분야 제조 스타트업
웹사이트	gsretailsip.co.kr

파트너십 기업/기관

GS리테일은 지속 가능한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해 'Green Life Together'라는 ESG 비전을 수립하고, 이 중장기 비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환경과 사회의 세부 전략 및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행 현황과 지속 가능한 경영의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목표

GS리테일 에코 소셜임팩트 프로젝트는 GS리테일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제조 분야의 소셜벤처 양성을 목적으로 소셜임팩트 창출 가능성이 있는 창업팀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혁신 창업 기초교육,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를 위한 실전교육, 소셜임팩트 창출을 위한 집중교육 등 기업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내용

2023년
6기 운영 기준

기초교육	목적	에코 제조 분야 창업에 대한 이해 함양 및 에코 소셜임팩트 관심도 증대
	내용	GS리테일 에코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스포츠 콘텐츠 홍보, 에코 제조 분야 전문가 특강
실전교육 7주	대상	에코제조 분야 창업 1년~3년 차 기업 15개 팀
	목적	창업 아이템 핵심 가치 도출 및 시장성 검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교육 내용	혁신 창업 방법론 기반 창업 실전 교육, 1:1 전담 코치의 정기 코칭, 선배 창업가 특강 및 토크콘서트
	지원 내용	팀당 40만원 시제품 지원금 지급
집중 교육 10주	대상	실전교육을 우수하게 수료한 에코 제조 분야 창업 1년~3년 차 기업 8개 팀
	목적	사업화 역량 강화 및 비즈니스 성과 도출, 소셜임팩트 측정 및 성과 창출 지원
	교육 내용	경영 분야별 전문가 특강, 선배 창업가 특강, GS리테일 MD 라운드테이블, 1:1 전담 코치의 정기 코칭
	지원 내용	팀당 300만원 시제품 지원금 지급, 팀별 프로필 촬영 지원
성과공유회	대상	집중교육을 수료한 에코 제조 분야 창업 1년~3년 차 기업 8개 팀
	목적	우수팀 선발 및 사업 성과 공유
	내용	GS리테일 MD 품평회, IR 피칭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반
2023년 사회적경제-CSR 협력 사례집

추진 전략

1년 이상 3년 미만 창업가 교육생을 선발하여 실전형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성격의 후속 창업 집중교육, 사업화 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까지 순차적 지원을 추진

기초교육	창업 단계와 프로그램 주제에 맞는 강연을 준비하고, 전 기수의 경험 및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고조
실전교육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에코제조 창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제공
집중교육	사업 분야에 따른 분과별 온·오프라인 집중교육을 통해 창업가로서의 역량 향상 및 사업 고도화,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팀의 성장 로드맵을 세워 지속 가능한 창업을 지원

프로세스



주요 성과

에코소셜 제조 분야 성장 지원	누적 매출 증가	신규 사업자등록
64 팀	23 억	22 팀
인증 및 특허 등록	신규 판매 채널 확보	신규 클라우드펀딩 성공
91 건	209 개	22 건
		신규 상품 개발
		169 개

사회적 임팩트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원고갈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 필요성과 ESG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조 분야의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회혁신 창업 교육 및 전담 코칭을 통해 기업의 사업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실행력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한 모든 팀이 본 프로젝트 기간 내 에코 소셜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고객 증가 및 채널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등 비즈니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연속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선배 기수 창업가와 해당 기수 참여자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초기 창업가들이 제조 분야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여팀 간에도 자연스럽게 협업이 이루어지는 등 에코소셜 분야 생태계가 강화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당사는 언더독스와 친환경 소셜벤처지원사업인 에코소셜임팩트를 운영하며,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의미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창업가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SME 사업과의 협력과 상생,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S리테일 조직문화서비스팀
사회공헌 파장장 김시연



애그테크 청년창업 캠퍼스 NH Seed



사업기간	2023년 7월 ~ 8월 1기 2023년 9월 ~ 11월 2기
협력 파트너	농협중앙회, 청년재단, 언더독스
파트너십 유형	SE 발굴 및 육성(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농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싶은 예비·초기 창업팀
웹사이트	nhseed.net



파트너십 기업/기관

농협중앙회는 농업분야 혁신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 첨단 산업으로 각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청년층의 농식품 분야 취업 및 농업 혁신 기술에 기반한 창업에 관심을 갖고 농협과 상생할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표

애그테크 청년창업 캠퍼스 NH Seed는 농식품 분야의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실전 중심 창업 교육 및 코칭, 체계적인 시장 분석, MVP 실행 검증을 통해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창업가로 성장시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가는 미래 농업을 선도할 애그테크·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AGTECH CAMP	대상	애그테크 농업분야에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 50개 팀
	목적	애그테크 및 농식품 창업 비즈니스 전략 구축 및 역량 강화
	내용	3C(고객(Customer), 경쟁사(Competitors), 자사(Company)) 분석 중심 교육 및 워크숍, 참여자 간 상호 학습 및 네트워킹
창업교육 : 사업고도화 프로그램 8주	목적	창업가의 문제 해결력과 실행력, 검증역량 향상을 통해 솔루션의 시장성 확인
	교육 내용	리서치 방법론, MVP 계획 수립, 경쟁사 및 시장 분석 등 창업교육 / 농식품 창업 트렌드, 클라우드 펀딩, 특허·지식재산권, 브랜딩 등 외부연사 초청 특강
취업특강	지원 내용	팀별 전담 코칭, 팀별 MVP 지원금 200만원 지급, 프로그램 수료 수당 60만원 지원, 임차비 및 교통비 지원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중 참여 희망자
	목적	추후 취업 혹은 채용시장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취업역량 강화
성과공유회	내용	기업 HR 담당자 특강 및 컨설팅
	목적	우수팀 선발 및 사업 성과 공유, 수료식
후속지원	내용	IR 피칭을 통한 우수팀 시상 및 상금 지급, 수료증 수여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및 희망자
	목적	예비·초기 창업가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내용	온라인 강의 제공, 온라인 코칭 제공

추진 전략

참여팀들이 올바른 문제 정의를 기반으로 지역과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그테크 캠프를 통한 솔루션 도출, 사업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MVP 계획 수립, 전담 코칭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AGTECH CAMP	1박 2일간의 집중교육 및 워크샵 과정을 통해 팀의 아이템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농식품 분야의 창업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
창업교육	MVP 제작과 검증에 집중해 사업화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8주 커리큘럼을 통해 초기 단계 창업가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
전담 코칭	전·현직 창업가 출신 코치와의 주차별 1:1 코칭을 통해 비즈니스의 현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차후 계획을 수립
취업특강	채용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에 필요한 마인드셋 및 비즈니스 관점 향상
후속지원	교육 종료 후 자율적으로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육 및 전·현직 창업가 출신 코치와의 코칭을 통해 예비·초기 창업팀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프로세스



주요 성과

애그테크 스타트업 성장 지원 1기

27 팀 40 명

애그테크 스타트업 성장 지원 2기

29 팀 42 명

사회적 임팩트

기후 변화, 인구 증가 등 환경 변화로 전통적인 농업 분야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창업캠프, 실행 중심 창업 교육과 코칭, 후속지원 등 단계별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애그테크 청년 창업가들을 농업 디지털 혁신 분야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시키고, 우리 농업 또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된 애그테크 및 농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 육성 프로세스와 창업팀의 성과는 향후 애그테크 분야의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들이 애그테크 및 농식품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업가로 진입할 수 있는 임팩트를 창출합니다.



애그테크 청년창업캠퍼스 NH Seed는 농산업 분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의 사업아이템을 스케일업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창업가가 가진 우수한 기술력과 신선한 아이디어의 결합이 만들어 낼 농촌의 모습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은 농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농협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를 마련하여 애그테크 산업 발전 및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 애그테크육성팀
계장 성민영



하나금융그룹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연도별 기수제 운영)
협력 파트너	하나금융그룹, (재)함께일하는재단, 언더독스
파트너십 유형	SE 발굴 및 육성(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개인 또는 팀
웹사이트	hanapoweron.com/social/produce



파트너십 기업/기관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 하나 파워온 임팩트 사업을 시작으로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1년 4월 ESG 중장기 전략 및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ESG경영을 도입하고, 그룹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실천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목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지역 인재 유출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내 청년 창업가 통합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전국 5개 광역 권역의 지역 대학들을 거점으로 삼아, 지역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할 수 있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알럼나이 후속 지원 등 로컬 창업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내용

2023년
2기 기준

거점대학별 창업교육 6주간 8회	대상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개인 또는 팀 1,501명
	목적	지역 문제 도출 및 해결에 적합한 창업 아이템 도출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
	내용	혁신 창업 방법론 기반 창업 실전 교육, 창업팀 별 1:1 전담 퍼실리테이터 지원
거점대학별 우수팀 선정	대상	거점대학별 창업교육을 수료한 개인 또는 팀
	목적	후속 지원팀 선정을 위한 우수팀 선발
	내용	거점대학별 2개 우수팀 선정(총 60팀)
우수팀 후속지원 프로그램 7주	대상	거점대학별 우수팀(60팀)
	목적	아이템 구체화와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통해 아이템 검증 및 비즈니스 성과 도출
	교육 내용	로컬창업가 사례 특강, 로컬 창업 현장 탐방
	지원 내용	팀당 300만원 아이템 검증 지원금 지급, 1:1 전담 코치의 정기 코칭
위케이션 1주	대상	거점대학별 우수팀(60팀)
	목적	로컬 창업 트립을 통한 창업 노하우 습득, 우수팀 간 네트워킹
	교육 내용	제주 지역 로컬 비즈니스 트립, 로컬 창업가 특강, IR피칭 역량 강화
성과공유회	대상	거점대학별 우수팀 중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선정된 12개 창업팀
	목적	최종 우수팀 선정 및 시상, 프로그램 성과 공유
	내용	창업팀 최종 사업계획서 발표

추진 전략

로컬 창업교육 저변 확대와 체계적인 지역 창업가 육성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역에서 창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내 창업 경험 및 창업 지원 경험을 보유한 인원을 창업 퍼실리테이터로 양성해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창업 교육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

창업 퍼실리테이터 양성 거점별 업종 및 창업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의 퍼실리테이터를 발굴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로컬 창업 이해도 및 지역 내 자원 연계 지원

로컬 창업 교육 창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 사회,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관점과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창업 이론, 워크숍, 퍼실리테이터의 코칭이 융합된 교육 제공

로컬 창업 생태계 이해도 향상 로컬 선배 창업가 사례 공유, 제주 위케이션 및 대전 로컬 창업 공간 탐방 등 로컬 창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프로세스



주요 성과

로컬 창업 협력 체계 구축	수도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등 5개 권역 30개 거점 대학과 협력 * 협력 대학 수도권 : 가톨릭대, 서강대, 인하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강원권 : 강릉원주대, 강원대, 상지대 영남권 : 경상국립대, 경북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아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충청권 : 건양대, 대전대, 우송대, 충남대, 한국전통문화대, 한서대, 호서대 호남권 : 교산대, 동신대, 목포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호남대
청년 창업가 역량 강화	로컬 창업을 희망하는 2,051명 청년 참여자 교육 * 1기 550명, 2기 1,501명
로컬 창업 전문가 양성	로컬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로컬 창업 퍼실리테이터 193명 육성 * 1기 50명, 2기 143명

사회적 임팩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전국화하고 로컬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결합해 로컬 창업 생태계를 강화했습니다. 전국 30개 거점대학과 협력을 통해 창업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역 특수성과 창업 전문성을 겸비한 창업 퍼실리테이터를 통해 로컬에 특화된 교육, 코칭, 멘토링 등을 제공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창업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년간 육성한 2,000 여명의 창업가, 200명에 육박하는 창업 퍼실리테이터는 향후 지역 내 창업 전문가로 성장하여 지역 내에서 예비 및 초기 창업가를 돕는 선순환 모델 구조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거점대학 교육

성과공유회

창업퍼실리테이터 육성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거점 대학과의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창업 기회를 얻고, 거점대학은 지역의 새로운 중심 역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ESG 선도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청년 인턴십, 창업지원 등으로 사회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ESG 기획팀
차장 **장희진**



임팩트스퀘어

IMPACT SQUARE.

대표 **도현명**

www.impactsquare.com

임팩트스퀘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임팩트 비즈니스를 소비하도록 한다’는 미션을 기반으로 이 시대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사회 혁신을 촉발하고, 또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창출하는지 연구, 분석합니다.

대표적인 사업 분야로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및 기업 ESG 이행 전략 컨설팅, 임팩트 투자 및 임팩트 측정/평가가 있으며, 전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비즈니스 경쟁력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 대상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임팩트/ESG 펀드 운용

ESG 경영 이행전략 컨설팅

임팩트 보고 및 측정

인프라와 커뮤니티 사업

주요사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벤처투자조합’ 민간투자 운용사

임팩톨로지 IMP 준용 소셜벤처 자가공시 서비스

서울숲 소셜벤처 클러스터 조성 자문 및 실행

소셜벤처 협의체 ‘임팩트 얼라이언스(Impact Alliance)’ 공동 조직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사업기간	2021년 ~ 현재
협력 파트너	KT, SVS,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임팩트스퀘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지원대상	디지털 기술 활용 소셜벤처
웹사이트	kttechplus.com

파트너십 기업/기관

KT는 디지털플랫폼 기술 기반의 ESG경영 활동으로 디지털 혁신 속에서 기업과 사회가 조화를 게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며, '포용적 협업 기반 소셜임팩트 극대화'라는 ESG 전략의 일환으로 ESG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VS(재단법인 한국사회기치연대기금)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발전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월 출범한 공익재단으로, 다양한 임팩트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목표

AI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문제 또는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조직의 임팩트 창출과 확산을 도모합니다. 나아가 자금 지원 외에도 참여기업과 KT 유관부서를 연결하여 기술 멘토링 및 사업 협력 기회를 제공해 솔루션 고도화를 지원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참여기업별 사업 지원금 기업당 1억 원 지원(우수기업 최대 5천만 원 추가 지원)

기업별 마일스톤(사업 추진 전략, 목표) 수립 및 달성 지원

월별 멘토링 지원(현황 점검 및 이슈 대응 지원)

KT 사업부문 협력 기회 발굴 지원

온라인 공동교육 진행

졸업기업 후속 지원

추진 전략

모집 부문을 친환경/디지털포용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분화된 지원 전략 수립

디지털 솔루션의 중요성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기술 전문 기업 KT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 지원금 외 디지털 기술분야의 사업 협력 기회, 연구소 자문 등 밀도 높은 지원 강화

우수기업 대상 임팩트스퀘어 직접 투자 집행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프로세스



주요 성과

최종 선정

부문 1 주식회사 하나루프, 주식회사 바이피피랩
부문 2 더치트 주식회사, 아타브엔터, 주식회사 모바힐, 주식회사 위플랜트

6개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시상

주식회사 모바힐, 주식회사 아타브엔터

2개사

사회적 임팩트

기술 개발 특성상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예상되어 쉽게 고도화하기 어려운 측면을 개선하고자 대기업의 기술 멘토링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 테스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 기술의 개발 및 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거나 새로운 기술 제품을 출시하고, KT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습니다.



(꼭 참여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사업적인 관점에서 KT와 참여기업은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가령 사업 참여기업과 공동 수주를 따내기도 하고, 참여기업의 솔루션을 KT 교육 플랫폼에 실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스타트업과 함께 일을 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와 고정된 틀을 깨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KT ESG경영추진실 ESG전략팀

팀장 박정해





SK머티리얼즈 'STAXX(스택스)프로젝트'



사업기간	2022년 ~ 현재(2년 차)
협력 파트너	SK머티리얼즈, 영주시, 경상북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임팩트스퀘어 등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지원대상	경북 소재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
웹사이트	staxx.co.kr



파트너십 기업/기관

친환경 Specialty Gas & Chemical 기술 회사 SK머티리얼즈는 경상북도 영주시의 지역 대표 기업으로,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혁신 창업 허브로서 창업기업 발굴부터 육성, 성장에 이르기 까지 경쟁력 있고 빠른 지원을 제공합니다.

목표

경상북도와 영주시를 거점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 소셜벤처들이 성장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로컬 창업 모델을 육성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

- 액셀러레이팅**
 - 경북을 거점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10개 기업을 선발하여 집중 성장(액셀러레이션) 지원
 - 지역 기반 창업의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 발굴
- 교육&네트워킹**
 -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투자 및 자원연계 프로그램 제공
- 지역투자펀드**
 - 경북에 100% 투자되는 성격으로 50억 원 규모의 경북청년애꿈ESG벤처투자 펀드를 조성
 - Pre-A 단계 경북 소재 기업 12개사 투자 집행 완료
- 커뮤니티**
 - 경상북도 영주시 구도심에 상업 공간,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된 청년 창업 교류공간 조성
 - 지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Community Program)

추진 전략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로컬 창업 생태계 구축과 청년 인구 유치의 마중물 전략 수립

프로세스

로컬 창업 생태계 구축	01 지역 내 창업문화 확산 기업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인적/물적 지원 필요 -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02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성장지원 지자체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방안 모색 -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사업 촉진
청년 인구 유치 마중물	03 청년층 정주 인구 유지, 관계 인구 창출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방안 필요 - 새로운 인구 개념의 적용
	04 문화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 해소 청년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커뮤니티 필요 - 청년이 머물고 싶은 지역 모색

주요 성과

소셜벤처 10개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사업운영 역량강화 및 투자연계

지역투자펀드 12개사의 초기 투자집행

지역 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정기 운영

사회적 임팩트

지역의 자원과 사회문제를 연계하여 임팩트 창출의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는 식음료 제품이 생산되었으며, 빈집을 리노베이션하여 중장기 지역살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정착을 돕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가의 사업역량을 제고하고, 환경, 장애, 로컬과 연계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임팩트스퀘어 [STAXX] 입주기업 협약식



SK머티리얼즈는 2021년부터 영주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STAXX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TAXX를 통해 선발된 10개의 소셜벤처는 영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전통시장에 양조장을 설립하거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캠핑 프로그램을 도입해 외부 관광객이 영주를 찾게 하고 지역의 빈집을 숙박명소로 탈바꿈시키거나 잉여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음료를 만드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TAXX는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들어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대표적인 지역 상생 프로젝트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SK머티리얼즈는 영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STAXX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SK머티리얼즈 지속가능담당
부사장 **조현철**





롯데케미칼 PROJECT LOOP SOCIAL



사업기간	2021년 ~ 현재(3년차)
협력 파트너	롯데케미칼, 임팩트스퀘어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지원대상	사회혁신기업, 고용 취약계층
웹사이트	projectloopsocial.com



파트너십 기업/기관

롯데케미칼은 'Green Promise 2030'을 ESG 경영 비전으로 정립하고, 2030년까지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 사업 규모를 100만 톤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대를 앞당기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목표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대로 가기 위해 자원순환 밸류체인 각 영역의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필수로 인식하고, 각 영역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활동 중인 소셜벤처를 지원, 협력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사업 내용

누적 8개 기업 지원
(사업실현금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우수팀 추가 사업실현금 지원)

사업화 전문가 멘토링 및 액셀러레이팅
(전략 수립 지원 및 월별 멘토링 등)

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한 온라인 강의 지원

롯데케미칼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술 자문

외부 전문가 멘토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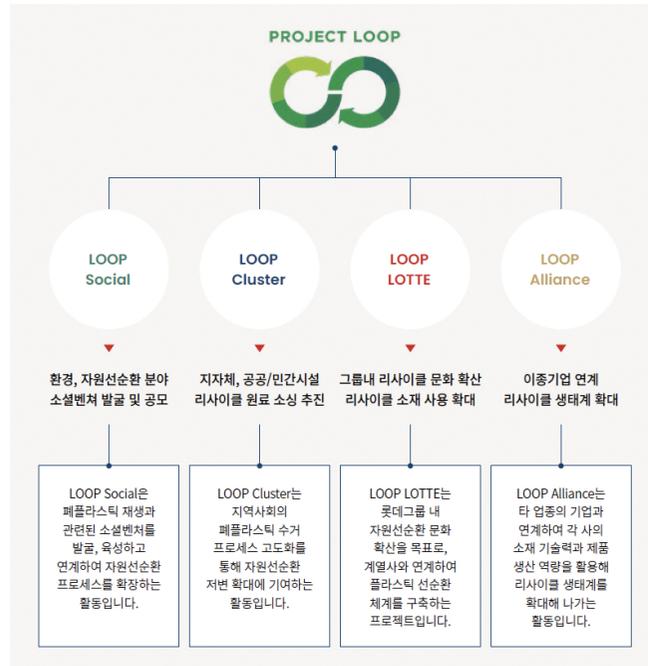
후속 협력 사업 추진

졸업기업 후속지원 및 관리

추진 전략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전체 밸류체인 내 문제가 되는 지점(Pain Point) 발견과 해결 관점에서의 접근

롯데케미칼 연구소를 비롯해 기업 내 자원순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셜벤처의 자원순환 경쟁력 강화



프로세스



주요 성과

Project Loop 2기
소셜벤처 기업 선정 및 지원

누적 8개사

3개사

사회적 임팩트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수거, 선별, 원료화 단계 전반의 유기적 순환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 속한 성장 가능성 높은 플레이어를 발굴하고, 각 사업의 임팩트 고도화를 위한 테스트,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폐플라스틱 순환 영역의 파급력 있는 임팩트 창출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전 참여기업(졸업기업)의 꾸준한 성장과 기수별 참여 기업 간 협력 기회 연계 등을 위해 체계적인 후속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루프의 점진적 도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루프 2기 성과공유회



프로젝트 루프 2기 성과공유회 부스관람



롯데케미칼은 PROJECT LOOP를 통해 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플레이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PROJECT LOOP SOCIAL은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체계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가진 소셜벤처를 발굴, 육성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들과 함께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분야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CSV팀
그룹장 **김병열**



대표 **김정태**
mysc.co.kr

2011년 설립 이후 '혁신을 돕는 혁신기업'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하여, 사회혁신 전문 임팩트투자·액셀러레이팅·컨설팅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하며, 상호 연대를 통해 임팩트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임팩트투자	사회환경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Seed ~ 시리즈 A 단계의 국내외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 '23년 9월 기준 AUM 526억 원, 14개 투자조합 운용, 141건 투자 완료-예비 / 인증사회적기업 28개 투자, 수도권 외 투자 39개, 해외기업 투자 4개, 여성기업 투자 22개
액셀러레이팅	매해 다양한 산업의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150여개 스타트업의 임팩트와 비즈니스가 균형있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컨설팅	ESG, 임팩트 평가, 오픈 이노베이션, 브랜딩 등 임팩트를 지향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및 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주요사업

국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SC 오리지널 액셀러레이팅(Extra-Mile Acceleration, EMA) · 현대차정몽구재단 /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 인클루전 플러스 · 카카오 / 카카오 제주 임팩트 챌린지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 신한금융희망재단 / 신한스퀘어브릿지 제주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민간 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 LG전자 / LG전자 ESG 오픈 이노베이션 · 아모레퍼시픽 / A more Beautiful Challenge 오픈 이노베이션 · 포르쉐코리아 / 지속가능성 ESG 컨설팅 · 부처별 액셀러레이팅(해양수산, 농식품, 관광, 스포츠)
글로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Program) · KOICA / IBS(Impact Chapter: Vietnam, 동남아시아 기후환경 스타트업 ESG 투자 사업) · 예술경영지원센터 / EMA ST+ART · 한국관광공사 / EMA Global Tourism · ASEIC / 스마트그린 스타트업 유럽 진출 지원 · Google.org / 디지털혁신기금 사업
글로벌 무브먼트/이니셔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PN 한국대표부 · 1% for the planet 비즈니스 멤버 및 voluntary ambassador 인증 Bcorp 및 비랩코리아 설립 파트너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사업기간	2012년 ~ 현재
협력 파트너	현대차 정몽구 재단, 엠와이소셜컴퍼니
파트너십 유형	SE성장지원(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임팩트 스타트업
웹사이트	h-ondream.kr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2023년 사회적경제-CSR 협력 사례집

파트너십 기업/기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2020년부터 '사회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재단'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3대 플랫폼(인재, 공간, 지식)과 헤리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과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
- 사회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래세대 리더 육성
- 기업과 조직구성원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생태계 협력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기업문화 확산

사업 내용

H·온드림 인큐베이팅 트랙 Adaptive Incubating	비즈니스 시장검증 지원 프로그램	
	대상	예비창업 ~ 법인 1년 이하 임팩트 스타트업(20팀)
	지원금	총 2.95억 원 / 기본 지원금 1천만 원, 최대 지원금 5천만 원(1팀)
H·온드림 액셀러레이팅 트랙 Business Accelerating	비즈니스 성장 가속화 지원 프로그램	
	대상	임팩트 창출 인증벤처기업, 임팩트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모두 포함(20팀)
	지원금	총 8.45억 원 / 기본 지원금 3천만 원, 최대 지원금 1.3억 원(1팀)
H·온드림 공동 프로그램 H:Program	H:Officehour	주제별 1:1 밀착 멘토링 (매주)
	H:Class	분야전문가 특별 강의 (월 1회)
	H:Leadership	대표자 리더십/기업가 정신 함양 강의 (월 1회)
	H:IR	VC들과 진행하는 소수정예 Closed IR
	H:Expert	분야 전문가 자문 연계

추진 전략

참여 펠로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성장지원

펠로십 강화를 통한 임팩트 지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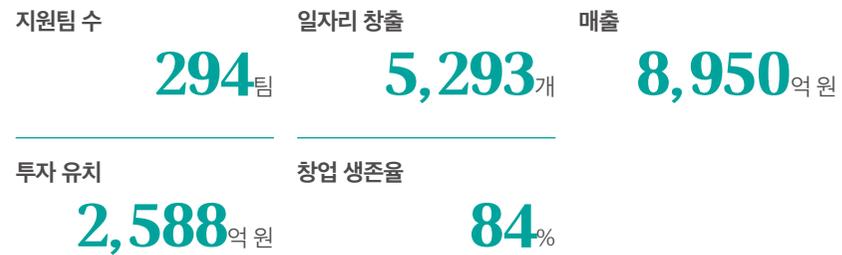
재단 자원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차별화

프로세스



주요 성과

1~10기 기준



사회적 임팩트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는 올해로 12년 차를 맞이한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BM과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임팩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투자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임팩트 스타트업의 성장에 기여해왔습니다.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엠와이소셜컴퍼니가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자이신 정몽구 명예회장의 기업가정신을 이어받아서 지난 10년간의 임팩트 스타트업 지원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가를 육성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과장 **심재민**



구글 디지털 혁신 기금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
협력 파트너	구글닷알지, AVPN, MYSC
파트너십 유형	비영리기관 프로젝트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구직자
웹사이트	m.blog.naver.com/blogmysc/222888303487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2023년 사회적경제-CSR 협력 사례집

파트너십 기업/기관

구글닷알지

구글의 자선활동과 사회혁신을 담당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고자 1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혁신기금 조성함

목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비즈니스 개선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 ① 소상공인&구직자가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
- ② 코로나19로부터 회복 및 디지털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내용

디지털 혁신 기금 총 5개 비영리기관에 전달	기관 1개 당 173,000달러(약 2억 3천만 원)를 지원 받아 디지털 혁신 관련 프로젝트를 1년 동안 기획/운영함
구글닷알지와 함께 자원연계 워크숍	비영리기관의 프로젝트 공유 및 니즈에 따른 구글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연계 및 프로그램 추천
반기 점검	6개월에 한 번씩 총 2회 마일스톤 점검 및 지속 가능한 운영 관련 1:1 컨설팅 제공
성장 공유회	디지털 혁신 기금 활용하면서 겪었던 인사이트, 노하우, 어려웠던 점들을 공유하며 프로젝트 마무리

추진 전략

비영리 기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구직자를 돕는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1) 디지털 혁신 관련 프로젝트 운영비 2) 내부 디지털 역량 강화비 지원

진입 단계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5개 비영리기관 선발
활동 단계	1년 동안 함께 마일스톤 체크 / 자원연계 하며 운영 지원
종료 단계	임팩트 리포트 작성 및 지속가능성 점검

프로세스



주요 성과

비영리기관 지원	디지털 혁신 관련 교육/혜택
약 2억 3천만 원 1개당 173,000 달러	수혜자 총 1,306 명

사회적 임팩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디지털 접근성 강화

도서산간 지역 학생/농부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장애인 대상 디지털역량 강화

홀리스 관련 비즈니스 자체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지원

무형문화재/예술분야 관련 디지털 역량 강화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디지털화 지원



빅이슈 판매원 현석님 인터뷰



구글 디지털혁신 기금 오리엔테이션



이번 디지털 혁신 기금은 기존 한국의 기금과는 다르게 Unrestricted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비영리 기관이 제한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불필요한 행정 및 요구사항을 줄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수혜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비영리기관도 같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Capital Mobilisation at AVPN
Senior Associate **Chia Zhi Hao**





MYSC
사회적경제 CSR 협력사례

메트라이프
Inclusion Plus+

메트라이프 인클루전 플러스



사업기간	2018년 ~ 현재
협력 파트너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파트너십 유형	SE성장지원(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금융포용 및 포용적 헬스케어 영역의 사회혁신기업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
웹사이트	inclusionplus.co.kr metlifewelfare.org

파트너십 기업/기관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은 '건강한 금융생활과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금융포용, 환경, 나눔, 문화예술 영역의 사회공헌활동을 실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목표

인클루전 플러스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사회'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신기업과 함께 금융소외의 문제와 건강격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업 내용

사회혁신기업 액셀러레이팅 및 임팩트투자 지원

- 조직건강성 모듈 | 지속가능성 진단 및 변화이론 활용, 임팩트리포트 발행 지원
- 재무건강성 모듈 | 재무안정성 점검 및 투자유치 준비 지원
- 비즈니스건강성 모듈 | 주제 맞춤형 오피시아워 및 분야 전문가 자문 지원
- 최대 15인 VC IR 기회 및 네트워킹
- 펠로우 네트워킹 | 네트워킹 데이 운영

임팩트 투자 및 지원금 | 총 2.6억 원

- 임팩트 투자 총 2억 원 | Top 2 기업 각 1억 원
- 사업 지원금 총 6천만 원 | Top 3~5 기업

메트라이프생명 비즈니스 및 사회공헌 사업 연계

- 임직원 참여 멘토링 및 협업 검토

알럼나이 기업 비즈니스 성장 지원

-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오피스 아워 제공(법률, 마케팅, 그로스해킹 등)
- 알럼나이 기업 참여 네트워킹 day 운영
- 신규 사회공헌 사업 론칭 | 장애인 청년의 건강 지원 전문 피트니스&서핑 프로젝트 "100일간의 SurfRise"(22년 참여 기업 '하루하루움직임 연구소' 협업)

추진 전략

기업별 비즈니스 및 소셜 임팩트 KPI 수립, 관리

3가지 모듈을 통한 맞춤형 통합 성장 지원 (조직건강성-재무건강성-비즈니스건강성)

2억 원 직접 투자 및 VC 네트워킹 제공



프로세스



주요 성과

지원	일자리 창출	직접 투자/지원
64팀	189명	15.1억 원
솔루션 수혜자	솔루션을 통한 사회적 가치	후속투자
1,583만 명	1,928억 원	294억 원

사회적 임팩트

2018년부터 진행된 국내 유일 금융포용(Financial Health) 주제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들이 청년, 소상공인, 이주노동자 등 약 1,240만 명에게 금융포용 솔루션을 제공하며 약 1,600억 원의 사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 시대,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빙 중요성 증가 등의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포용적 헬스케어로 주제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알럼나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청년의 건강을 위한 전문 피트니스 & 서핑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론칭 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였습니다.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문제 대응에 있어, 사회혁신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사회혁신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인클루전 플러스는 참여 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검토 하여, 실질적인 소셜임팩트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이사 **황해경**



카카오 제주임팩트챌린지 (JIC)



사업기간	2021년 ~ 현재
협력 파트너	MYSC,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파트너십 유형	지역상생
지원대상	제주도 내 문제를 직접 발굴-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제주도민
웹사이트	jeju.kakao.com

파트너십 기업/기관

카카오의 혁신과 우리의 연결이 모여 더 나은 세상,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목표

카카오의 '지역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씽킹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역량강화 교육 및 문제 해결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도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역량강화

지속 가능하고 제주다운 변화와 발전에 기여

사업 내용

디자인씽킹 워크숍	· 디자인씽킹 기반의 문제 발굴-정의-해결 과정별 워크숍 제공
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 팀별 문제 해결 프로젝트 실행 지원금 제공
멘토링 및 자원연계	· 팀별 1:1 전담 멘토링 제공 · 문제 해결 프로젝트 실행 시 필요한 주제별 특강, 전문가 연계 등 자원연계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 참여팀 중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팀 대상 후속지원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 후속 프로젝트 지원금 및 멘토링 제공

추진 전략

참여자들은 문제 해결 역량을 내재화하고,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진입 단계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진 팀 선발
활동 단계	워크숍, 특강, 멘토링 등 문제 해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종료 단계	지속가능성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지원 제공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2023년 사회적경제-CSR 협력 사례집

프로세스



디자인씽킹 워크숍, 멘토링 등

주요 성과

문제 해결 프로젝트

누적 **25**개

후속 지원 및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연계 프로젝트

6개

도민 문제 해결

역량강화

사회적 임팩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초기단계 팀에게 문제 해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 해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프로젝트 진행 시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과 상생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다운 변화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제주도민들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디자인씽킹 워크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면서 참여팀들의 성장과 제주지역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지켜보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제주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인터넷하는 돌하르방'과 JIC를 연계하여 추가 지원 진행함으로써 JIC 참여팀의 지속가능성과 즐거운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경험과 발견

변화의 현장은 많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현장들이 연결되는 새로운 장을 모두 목말라합니다. 이전에 없던 변화, 정확히는 이전에 존재했던 변화들로부터 생성되는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 가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라운드테이블: 경험과 발견'을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 조직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그 속에서 얻은 발견을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구분	조직
기업	GS칼텍스, 무신사, CJ제일제당, CGV, 코오롱, 한국에자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CJ대한통운, 매일유업(주),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투자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MYSC, 한국사회투자
솔루션조직	코끼리공장, 늘푸른자원,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주)나비소셜컴퍼니
정책 및 매개 조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노소셜랩

구성

2023 라운드테이블은 2개의 아젠더를 중심으로 구성 및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젠더는 순환경제입니다. 2022년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제정되었고,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 단계별 제도가 강화되거나 신설됩니다.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변화는 곧 전환을 의미하고, 이 전환은 어느 한 조직이 자신의 책임 분야를 다 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라는 자원의 순환을 생각한다면, 종류별 플라스틱의 수거, 선별, 재활용 가능한 수준의 세척과 가공 등의 단계는 기존의 폐기, 재활용 절차에 비해 한층 강력해지고 촘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환의 수준은 원자재 단계에서부터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가 나타나야 합니다. 당장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산업들이 가지고 있던 느슨한 연결망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투자와 정책적 지원, 플레이어의 유입과 역량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이 이미 사회적경제 안에서는 시작되고 있었고, 몇몇 기업들은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함께 이런 전환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기존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아젠더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제 그 속도 측면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의 시스템은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감당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한데, 특히 라운드테이블에서 다루어졌던 주제는 고령 인구의 건강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고령 인구의 빈곤과 건강은 어르신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입니다. 의료의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 기본 의료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은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의료를 넘어 삶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보건, 위생, 먹거리 등 건강을 둘러싼 일상적인 돌봄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정부의 재정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시민들의 자조적이며 연대적인 돌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러한 시민들의 협력을 돕기 위한 기술과 상품의 개발은 잘 되고 있는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성과가 있는지가 모두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진행

2회에 걸친 라운드테이블은 동일한 포맷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각의 아젠더에 대응하는 활동을 해봤거나 관련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기업, 이러한 아젠더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이나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 투자자,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정책조직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활동 경험을 배경, 활동, 성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이로 인해 얻은 성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은 매회 13개 내외의 조직이 모였고, 참여한 모든 조직이 자신의 경험과 발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각각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가진 고민이 다른 조직에서도 발견되며, 나에게 없는 솔루션이 다른 이에게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과

'컬렉티브임팩트'는 이제 협력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5개의 요소는 협력을 이야기하는 이들이라면 외울 정도로 그 내용이 친숙해졌습니다. 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이 협력을 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일 것입니다. 대화는 생각의 정리, 말하기, 잘 듣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협력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공감능을 가능케 합니다.

라운드테이블은 이러한 대화와 다양한 협력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돌봄서비스, 케어푸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 투자, 행·재정적 지원, 유통망 확보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분

명히 존재합니다. 한편 이러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사들이 있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에 구축한 기반하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실험해보고 싶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기업-투자자 사이의 현장형 연계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이러한 사례의 발굴을 원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차적인 돌봄을 넘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 돌봄을 주제로 한 지역사회 전환의 가능성까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이 확신으로 바뀌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운드테이블은 협력의 안과 밖에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의 고민이 고민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연결해 협력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실마리와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점하기를 바라며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4부

연대와 협력 그리고 사회적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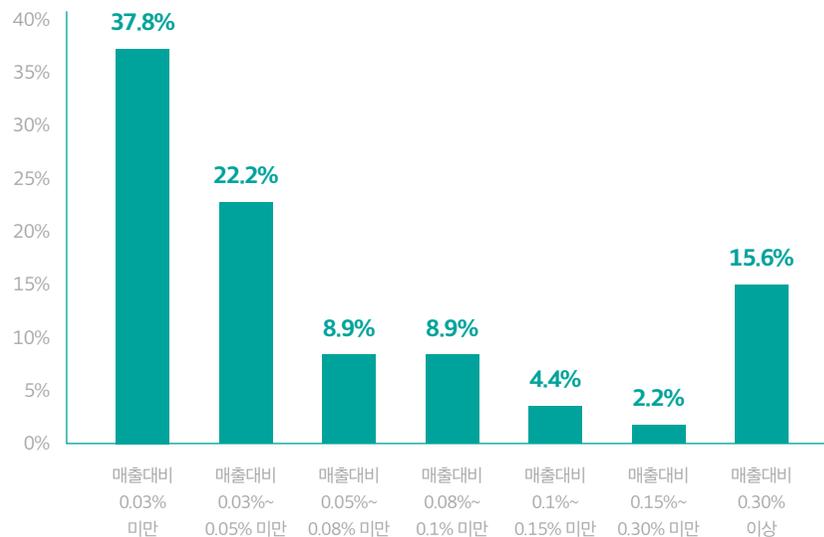
우리 사회의 산업과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문제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고, ESG 경영이 활발히 도입되며 기업의 사회공헌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파트너 기관으로서 사회적경제 기업도 협력과제와 책임이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현장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회적경제 트렌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생각을 들어봅니다.

2024년의 사회공헌과 사회적경제

산업·기술 성장이 고도화되면서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이면에서 숨겨졌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ESG, 사회혁신, 임팩트 등으로 불리며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기업에서도 사회공헌,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바라본 사회공헌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전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에 2주간 진행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45명의 사회공헌담당자 중 62%(28명)는 상장기업에 재직중입니다. 71%(32명)는 재직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재직 중이며, 87%(39명)가 3040세대입니다. 76%(34명)가 사회공헌 업무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69%(31명)에 속하는 기업들에 사회공헌 전담팀이 있습니다. 이들이 속한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은 분포를 보입니다.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효과

사회공헌이 변하고 있다, 혹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ESG 경영환경이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ESG 경영환경 하의 사회공헌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는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이들에게는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질문했습니다. 현재 사회공헌의 효과로 체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의 만족도가 미래의 변화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효과가 매우 큼', '효과가 있음' 두 개 항목을 선택한 답을 모아 체감도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에 체감 점수가 높았던 항목은 사회적 책임 이행(95.6%)>지역사회의 관심과 요구 대응에 기여(88.9%)>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8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미션 달성에 기여(64%)한다거나, 내부 구성원의 관심과 요구 대응에 기여(66%), 고객의 관심과 요구 대응에 기여(67%) 한다는 답은 낮게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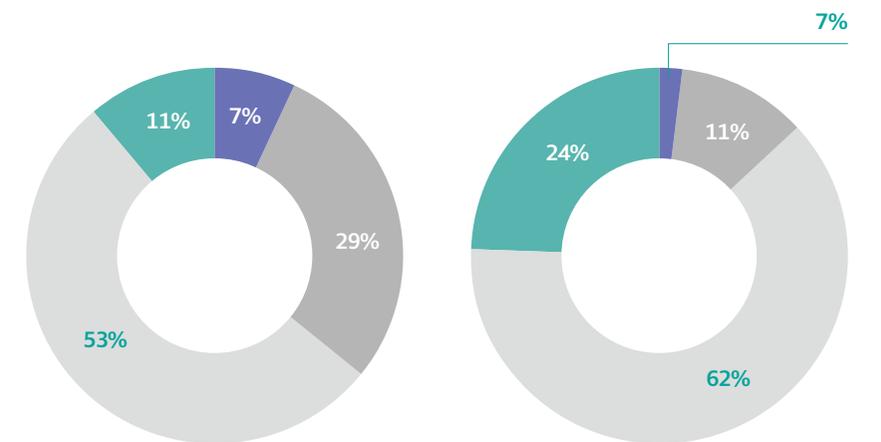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는 규범과 의식은 갖추고 있지만, 사회공헌의 목표나 사회공헌의 전략적인 소구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공헌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으며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공헌에서 필요합니다.

기업 미션달성에 기여

- 효과가 전혀 없음
- 효과가 없음
- 보통
- 효과가 있음
- 효과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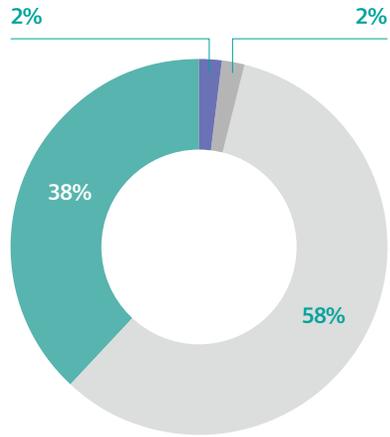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 효과가 전혀 없음
- 효과가 없음
- 보통
- 효과가 있음
- 효과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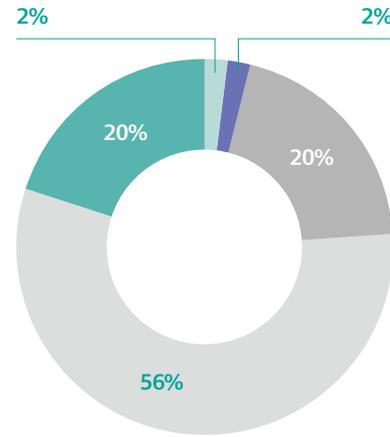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

- 효과가 전혀 없음
- 효과가 없음
- 보통
- 효과가 있음
- 효과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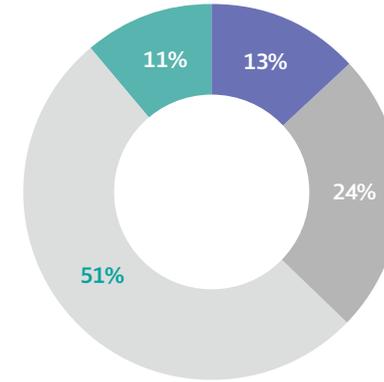
ESG 등 경영환경 변화 대응에 기여

- 효과가 전혀 없음
- 효과가 없음
- 보통
- 효과가 있음
- 효과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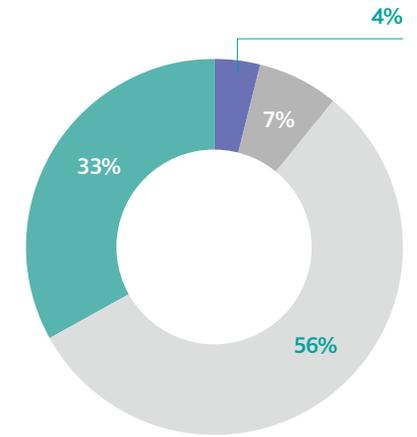
내부 구성원의 관심과 요구에 기여

- 효과가 전혀 없음
- 효과가 없음
- 보통
- 효과가 있음
- 효과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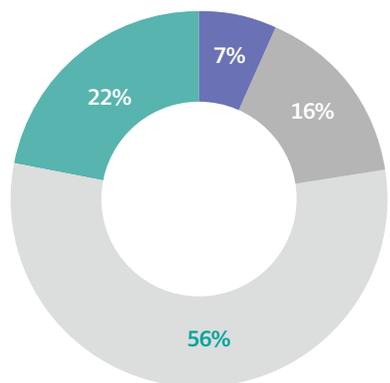
지역사회의 관심과 요구 대응에 기여

- 효과가 전혀 없음
- 효과가 없음
- 보통
- 효과가 있음
- 효과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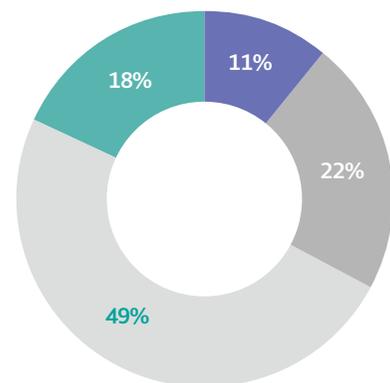
정부의 관심과 요구 대응에 기여

- 효과가 전혀 없음
- 효과가 없음
- 보통
- 효과가 있음
- 효과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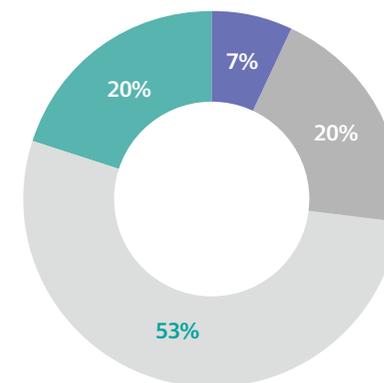
고객의 관심과 요구 대응에 기여

- 효과가 전혀 없음
- 효과가 없음
- 보통
- 효과가 있음
- 효과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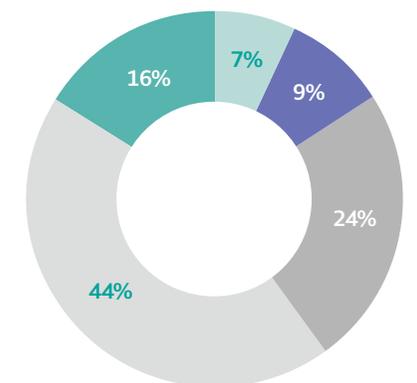
언론시민단체 등의 관심과 요구 대응에 기여

- 효과가 전혀 없음
- 효과가 없음
- 보통
- 효과가 있음
- 효과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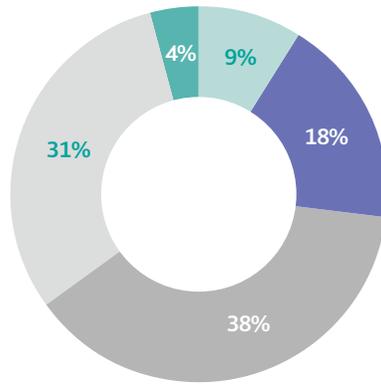
기부금 세제 혜택에 기여

- 효과가 전혀 없음
- 효과가 없음
- 보통
- 효과가 있음
- 효과가 매우 큼



우수 인재의 유치 및 유지에 기여

- 효과가 전혀 없음
- 효과가 없음
- 보통
- 효과가 있음
- 효과가 매우 큼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협업

기업 사회공헌에서 파트너십과 협업은 이제 사회공헌의 성과와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자체적인 기획을 많이 하고, 이를 협업을 통해 실현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거꾸로 기업에 맞춤형 제안을 파트너 기관이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지원 사이에서 수요 공급의 디커플링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공헌의 성과는 협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창출됩니다. 이번 설문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에 달했습니다.(매우 필요함 60.0%, 필요함 31.1%)

파트너십을 세부적인 요소로 나누어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대체로 파트너십에 대한 만족한다는 답이 많았지만, 협업 파트너가 기업에 대해 가지는 이해의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파트너 기관의 전문성이나 사업 의지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사회공헌 파트너십에 대한 만족도를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점수
파트너십 경험 전반에 대한 만족도	0%	0%	20.0%	64.4%	15.6%	4
협력 파트너가 가진 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성	0%	2.2%	20.0%	46.7%	31.1%	4.1
협업 파트너 담당자의 뚜렷한 사업 의지	0%	0.0%	20.0%	51.1%	28.9%	4.1
협업 파트너가 가진 기업에 대한 이해	0%	6.7%	40.0%	37.8%	15.6%	3.6
협업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용이함	0%	6.7%	24.4%	51.1%	17.8%	3.8
파트너십 기간	0%	4.4%	31.1%	51.1%	13.3%	3.7
파트너십이 창출한 성과	0%	4.4%	33.3%	51.1%	11.1%	3.7

기업과 기업의 파트너십(사회적기업, 비영리조직 등)은 조직의 목적과 운영방식, 의사결정구조가 모두 다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협업을 하다 보니 당연히 쉽지않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트너십의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파트너십의 목표에 대한 합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파트너십을 맺는가, 왜 협업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협업의 전 과정에서 계속 질문되고 고민되어야 하겠습니다.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파트너십의 목표에 대한 합의	파트너 기관 간의 상호존중 및 이해	명확한 역할 분배와 책임 정립	공정한 자원의 분배와 사용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합의된 기준에 의한 사업평가
37.8%	24.4%	28.9%	2.2%	2.2%	4.4%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공헌 활동의 협업

최근 기업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변화하면서 민간에서의 다양한 협업들이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업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비영리조직과 사회공헌의 협업이 주로 기부라는 형태로 집중되는 것에 비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은 여러 차원에서 제시됩니다. 큰 테두리로 나눠보면 사회적기업가-종사자 지원과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현물, 물품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물품 직접구매 지원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가장 익숙한 협업의 형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의 형식을 통해 현장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가의 발굴이나 창업 지원이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귀하가 속한 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과 2023년에 협력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지원(창업 지원, 펠로우십 지원 등)	13.7%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지원	6.9%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자금 지원	10.8%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물품 지원	6.9%
사회적경제 종사자 지원(인턴십,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등)	6.9%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자문 및 기술 지원(프로보노, 각종 인증취득 지원 등)	8.8%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유통 지원, 사내 카페 입점 지원 등)	12.7%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직접 구매	16.7%
사회적경제기업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 및 유지(가치사슬 연계, 인수 및 합병, 직접 설립 등)	6.9%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경험 없음	9.8%

그렇다면, 이러한 협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협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설문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의 경험(6.9%)은 적지만, 만족도(16.1%)는 높다는 측면에서 향후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의 협업이 확장될 수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과의 협업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지원(창업 지원, 펠로우십 지원 등)	12.6%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지원	4.6%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자금 지원	10.3%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물품 지원	5.7%
사회적경제 종사자 지원(인턴십,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등)	6.9%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자문 및 기술 지원(프로보노, 각종 인증취득 지원 등)	8.0%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유통 지원, 사내 카페 입점 지원 등)	13.8%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직접 구매	11.5%
사회적경제기업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 및 유지(가치사슬 연계, 인수 및 합병, 직접 설립 등)	16.1%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경험 없음	10.3%

앞으로의 협업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형태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 될까요?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 및 유지(35.6%)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은 일반적인 '지원'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 대 기업으로서 서로의 욕구에 기반한 협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지 못한 것을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험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의 밸류체인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실험되고 있는 현상들이 설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과의 협업에서 가장 중요해질 협업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지원(창업 지원, 펠로우십 지원 등)	15.6%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지원	0.0%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자금 지원	11.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물품 지원	6.7%
사회적경제 종사자 지원(인턴십,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등)	2.2%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자문 및 기술 지원(프로보노, 각종 인증취득 지원 등)	11.1%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유통 지원, 사내 카페 입점 지원 등)	8.9%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직접 구매	8.9%
사회적경제기업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 및 유지(가치사슬 연계, 인수 및 합병, 직접 설립 등)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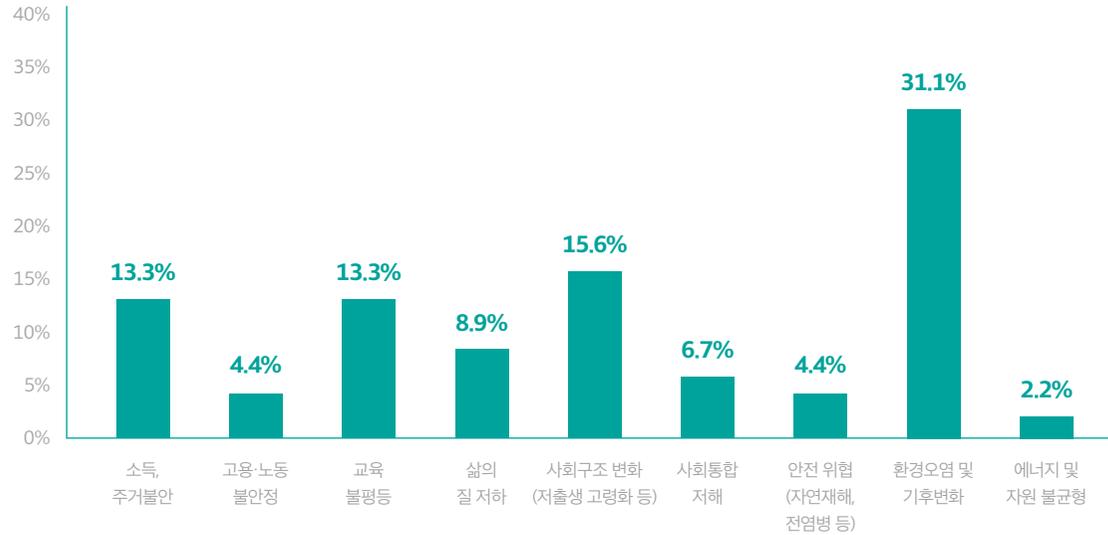
2024년 전망

2024년은 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에서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우선 설문에 응답한 기업 담당자 중 26.7%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고, 협력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하는 답도 40.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 귀하의 기업은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에 대해 계획 혹은 고민 중이신가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을 계획 중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을 고민 중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에 대한 고려 없음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단계
26.7%	40.0%	20.0%	13.3%

이런 협력은 사회공헌 활동의 어젠다와도 관련이 깊을 텐데요,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들이 2024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이슈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31.1%)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저출생고령화(15.6%), 교육 불평등(13.3%), 소득 및 주거 불안(13.3%)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양하고 깊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5인 5색 인터뷰

협력적 파트너십의 생태계 조성자 인터뷰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간·공공과 함께 하는 협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언어를 가진 sector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 일종의 파트너십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간조직들이 필요합니다. 5개 기관을 만나 올해의 사회혁신,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진행** 이노소셜랩
- 참여** **안준상** |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사무국장
- 유연성** | 언더독스 파트너
- 김소선** | 임팩트스퀘어 senior manager
- 이원태** |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 이예지** | MYSC CBO

Q. 2023년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나 트렌드는 무엇이였을까요?

안준상 비영리 영역에서의 접근성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명칭이 친숙해지는 해였고,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비영리 영역 모두에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던 영역이 스타트업이라는 역동적인 단어로 조금 더 다른 경계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바라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즈니스만으로는 부족했던 순수 자선 영역의 아이템과 지원체계, 대상자 관련한 것들이 스타트업의 활동성이라는 장점과 결합하여 새로운 도전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영리 생태의 여전한 자원의 부족과 사회적경제 영역과 비교할 때 비즈니스적으로는 접근 자체가 어려운 환경, 제약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익영역의 한계 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스타트업은 어찌 보면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영역에서도 간과되었던 非 비즈니스 영역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성 ESG가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ESG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은 각각의 이해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결과물을 모두가 합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정량적 형태로 제시하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직은 ESG 중에서도 Environmental 분야와 사회혁신 간의 결을 맞춰 진행하는 활동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Social 영역, 그 중에서도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기반으로 한 사회혁신 활동과 프로그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소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대한 생태계 전반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측면의 AI 접목 아젠다가 부상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팩트 스타트업 영역에도 혁신적인 솔루션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는 환경문제에 밀도를 더하고, 기존의 차원을 넘어선 혁신을 위한 AI 활용이 이슈화되며 생태계가 질적으로 성장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태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으로 인해 한정된 시간과 물리적인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더욱 진화되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혁신기술과 결합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대중이 주도적으로 사회혁신에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T기업 ‘스냅피시(Snapfish)’ CEO 출신 ‘벤 넬슨’이 설립한 미국의 미래형 대학인 미네르바 스쿨이 그 예입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시도가 있습니다. VR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취약 계층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인드브이알(VR),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문자통역 서비스 소리를 보는 통로(소보로), 교통약자 맞춤형 정보 제공 위치기반 데이터플랫폼서비스를 지향하는 월체어 등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반대급부로 **디지털 격차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기반해 정보격**



차를 해소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션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도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예지 ESG 환경에서는 사회적경제가 하나의 단일한 섹터로 해석되는 것을 넘어 각자의 분야에서 갖고 닦아온 솔루션들로 기업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한 로컬에서 각자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더 적극적 역할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눈에 띄는 한 해였습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이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 방향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하나의 옵션이 되었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투자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 스타트업이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성장경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다양한 협업의 경험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협력과 관련하여 2023년을 포함하여 최근 발견되고 있는 주요한 특성은 무엇일까요?

안준상 정부가 국정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민관 등의 협력이 많아진 해인 듯합니다. 특히 지역소멸과 청년 관련 문제, 금융부채, 영세소상공인 안정화 등과 같은 이슈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같은 다자간 협력의 방식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의 지역 청년 지원사업 경우 기업,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지역 활동의 기회와 중앙정부의 공신력까지 더해주는 방식으로 참여단체의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었고, 개인의 금





융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자산형성, 멘토링까지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게 설계된 지원사업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신용회복 관련 중앙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시범 진행되며 사회안전망의 보완재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및 경영 안정화 이슈에 기업사회공헌과 소상공인 관련 중앙기관이 함께하여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민관 협력적 방식으로 적시에 지원하는 형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연성 사회공헌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ESG라는 하나의 서클로 묶여가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청년 창업' 자체를 지원하는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있었지만, 최근의 협업은 대상자에 대한 수혜적 관점이 아닌 협력적 관점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 혹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과의 접점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창업팀들도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신들의 사업에 ESG가 갖는 의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김소선 오픈 이노베이션과 밸류체인 상의 유기적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특성이 더욱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임팩트스퀘어가 롯데케미칼과 함께하는 'PROJECT LOOP'사업은 단순히 환경오염 저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수거, 선별, 원료화 단계를 세분화한 뒤 가장 혁신적인 솔루션을 가진 기업을 선발, 상호 협력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문제 등 한 명의 플레이어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시적인 사회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더욱 거세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태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필요한 전문성, 역량을 사전조율하며 단기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례로 2012년 함께일하는재단과 유한킴벌리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시니어 용품을 개발하는 사회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시니어비즈니스 기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시니어케어 매니저 육성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소셜시니어벤처 설립, 시니어앰팩트 펠로우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시니어 계층의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예지 생물다양성 등 ESG 영향에 따라 협업을 희망하는 주제들이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소 쓸림현상이 있어 새로운 기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곳들을 발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좀 더 쓸림이 덜한, 그러나 주요 임팩트 주제로 떠오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학습을 통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얼마큼의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평가하고 관리하려는 접근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IMP, SVI 등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 도구들도 많이 소개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실제적인 임팩트 관리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협업과 관련하여 2024년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으신가요?

안준상 사회연대은행이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사회적금융의 단초를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실천해온 지 2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특히 그동안 지향했던 대상자와의 관계성을 중요시해 왔던 주요 가치들이 대상자의 다양화, 지역적 한계, 지원 규모의 확대 등을 이유로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비영리 공익법인에 강조되는 기부금의 투명성 등에 대한 의무사항이라는 이중적인 한계상황에서 사회적금융의 재원을 조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상자와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 관계성 안에서 금융적인 활동을 다시금 만들어 보고자 '함께기금(가칭)'이라는 사회연대은행만의 독립적, 자주적 기금 조성 및 운영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2024년에는 작은 규모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유연성 언더독스는 창업교육을 넘어 조직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창업가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공헌이나 기업의 ESG 창출 활동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수혜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고 ESG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저변을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고, 언더독스는 이를 '창업'이라는 관점에 더해 내 사회변화를 위한 혁신의 중요성을 터득하는 '창업가형 인재' 육성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소선 임팩트스퀘어의 대표적인 사업 분야는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및 기업 ESG 이행전략 컨설팅, 임팩트 투자 및 임팩트 측정/평가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결되는 속도보다 약화되는 속도가 더욱 빠른 사회문제의 특성상 플레이어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원 전략 면에서도 액셀러레이팅과 투자, 그리고 기업 ESG 이행 전략이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팅 사업도 점차 고도화하여 더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는데요. 2024년에는 기존 사업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로컬, 글로벌 등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업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원태 정부 정책이 기존 육성 지원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했습니다. 정부의 제도관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민간의 목표나 계획도 개편되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전환한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민간의 지원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 정책의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은 크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재화)과 (사회)서비스 판로 확장을 통한 규모화 촉진, ESG경영관점에서 사회적 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 자금 조달 체계 구축 등 2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단은 우수한 민관협력 기관들과 지원정책을 강화하거나 지원정책이 단지 않은 결핍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협력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예지 MYSC는 2024년에도 지속해서 다양한 로컬에서의 파트너십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제주, 경남, 전북 등 지역의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펀드 조성, 공간 구축 등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 MYSC와 같은 역할을 하는 파트너가 해당 역할을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돕고, 자원을 공유하는 등 로컬들의 고유성이 보존되는 지속 가능한 임팩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꾸준히 역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더 깊숙이 진입하고자 합니다.

MYSC 설립 시점부터 글로벌 사회혁신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으며, 꾸준히 KOICA와 함께 동남아 시장으로 한국 개발 협력 스타트업들의 진출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임팩트 생태계를 연결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협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스템적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안준상 협력의 방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 그대로 협력에 대한 신뢰일 듯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협력적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온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상호 기관에 대한 진정한 파트너십 인정과 그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할 듯합니다. 재원을 출연하는 곳과 정부 등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우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민간 전문영역과 협력할 때 그 분야의 가치와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게 분명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기존의 '용역 방식'의 '비용적 효율' 등과 같은 지표는 건강한 파트너십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협력 활동으로만 그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협력 파트너의 장점과 한계성을 모두 인정하고 그 토대에서 상호 윈윈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때 진정한 양적, 질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성 변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진행되고, 그 기간 내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일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일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프로그램 협업이 기획된다면, 당장의 성과는 미약할 수 있으나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질적 개선과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이에 따라 어떤 **역할을 대행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점에서 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쉽지 않겠지만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진행하는 사고의 전환과 연습이 더해져야 합니다. 물론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는 기관에서도 **공동의 아젠다와 목표를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협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김소선 임팩트스퀘어는 오픈 이노베이션 혹은 자원연계를 할 때 ‘코디네이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협업의 주체가 서로 다른 산업,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일 경우 사용하는 언어도, 각자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방식 혹은 추구하는 속도도 저마다 달라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과 소셜벤처를 연결하는, 서로의 매커니즘과 방향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한 것이지만, 단기간에 100%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을 잇기 위한 경험 많은 코디네이터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임팩트스퀘어와 같은 액셀러레이터일 수도 있고, 많은 중간지원조직일 수도 있고, 혹은 대기업 내부에 있으면서 임팩트 생태계를 잘 이해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태 과거보다 더 강화된 협력상생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협업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버들란피의 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전체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체계」인 시스템이 곧 완성형 시스템으로, 생태계 또는 기관조직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외부환경과 지속적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 것이 협업조직의 궁극적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협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하에 **협업하는 중간지원조직 구성원 간의 주기적인 교류를 통한 관계 형성** 및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공동으로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DB를 바탕으로 생산된 양질의 콘텐츠를 대중에게 제공하여 이슈를 환기하고 확산하기 위한 의견 교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업을 통해 일하는 관점에서 **외부환경과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이예지 관계(Relationship Capital)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임팩트 생태계가 지난 5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한편으로 생태계 내 관계자본은 얼마나 축적이 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새로운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포용하며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경험/자원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며 함께 역량이 강화**되어야 임팩트 생태계의 다음 단계를 더 균형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4년은 더욱 사회적경제 분야를 포함한 국내 임팩트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자생가능하고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며 다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2023년 사회적경제-CSR 협력 사례집

발행일 2023. 11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행인 정현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노소셜랩

편집인 노희정, 이용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대권 | 이노소셜랩

편집위원 김소선 | 임팩트스퀘어
박상금 |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유연성 | 언더독스
이예지 | MYSC
이원태 | (재)함께일하는재단

주소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6~8층
전화 031-697-7700
홈페이지 socialenterprise.or.kr
페이스북 facebook.com/social365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osea_365

ISSN 2951-472X

본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제할 수 없으며,
책자의 내용 및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발간등록번호

11-B552745-000056-01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9 772951 472007

ISSN 2951-472X